

서해 新관광 기폭제 될 보령 해저터널 개통되다

세계 5위, 국내 최장 해저터널
보령 대천항~원산도 잇는 6.9km
착공 11년 만에 대장정 마무리

서해권 교통 초단축 대변화
태안~보령 이동 90→10분
운행거리 95km→14km 단축

원산안면대교 이어 해저터널 개통
부산~전라~충청~파주 잇는
897km 국도77호선 마지막 완성

道 서해안 신관광벨트 조성
해양레저 산업 등에 8조 투입
2025년 관광객 4000만명 목표

충남 보령 대천항과 원산도를 연결하는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됐다. 바다로 단절됐던 국도 77호선이 연결되며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서해안 관광산업의 큰 변화가 기대된다.

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길고, 깊은 보령 해저터널이 12월 1일 오전 10시 정식 개통돼 차량 통행이 시작됐다. 터널 개통으로 2년 전에 세워진 원산안면대교(해상교량)와도 연결돼 보령 대천항에서 태안 안면도까지 이동 시간이 90분에서 10분으로 크게 줄었다. 두 지역간 운행거리도 95km에서 14km로 81km가 단축됐다. 보령 해저터



국도77호선 미완의 길을 완성하다

충남 보령시 국도 77호선 보령해저터널 개통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동일 보령시장 등 참석자들이 터치 버튼을 누르며 개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맹철영

널 개통은 남해안에서 서해안, 경기도 파주로 연결되는 국도 77호선의 완성이라는 큰 의미를 지닌다.

보령 해저터널은 총연장 6.9km,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 5번째로 길다. 세계 해저터널과 비교하면 일본 동경아쿠아라인(9.5km), 노르웨이 북나피요르드(7.9km)·에이커선(7.8km)·오슬로피요르드(7.2km)에 이어 다섯 번째다. 연장 6.9km 중 순수 해저구간이 5.2km에 달하며, 해저면으로부터 55m, 해수면으로부터 최대 80m 하부에 위치하고 있다. 상·하행 2차로 분리터널로 대천항과 원산도 양방향에서 각각 굴착해 중간지점에서 만나도록 설계됐다.

해저구간 공사 과정에서 화약을 사용해 단단한 암반을 뚫는 나뭇(NATM)공법이 쓰였으며, 터널 내 해수유입을 방지하는 차수그라우팅 등 국내 신기술 공법이 적용됐다. 보령 해저터널에는 현재 대인경 21개(220m

간격), 차량경 10개(660m 간격), 옥내 소화전 301개(50m 간격), CCTV 92개(150m 간격)가 설치됐다.

道, 8조 규모 新관광벨트 구축

보령 해저터널 개통으로 서해권 접근이 편리해지면서 수도권과 중부권, 전라권 등 전국 관광객이 급증할 전망이

다. 때맞춰 충남도는 서해안 신관광벨트 조성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

충남도의 신관광벨트 조성 종합대책은 해양레저와 교통망 확충 등 61개 사업에, 8조 4579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여기에 대명리조트, 원산도 해양관광케이블카, 안면도 관광지 조성, 서산 간월도 개발 등 민

간자본 투자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도는 해양 관광자원을 연계한 서해안 관광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령머드바람회, 섬국제 비엔날레 등 국제 행사를 열어 2025년 관광객 4000만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김정원 jwkim87@korea.kr
/도로철도항공과 041-635-4674



충남 보령해저터널 개통 충남 보령해저터널을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보령해저터널

- ▲위치 : 보령 대천항~원산도
- ▲총연장 : 6.9km(해저구간 5.2km), 4차로
*연장기준 세계 5위 해저터널
- ▲수심 : 최대 80m
- ▲공법 : 국내 최초 팔파 굴착방식 NATM공법
- ▲사업기간 : 2010.12~2021.12

도민이 주인인 충청 지방은행 설립은 내돈내산입니다

뉴스 맥락

충청권은 수도권 은행 각축장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은 수도권 금융기관들의 각축장입니다. 수도권 금융기관과 심지어는 광주 등 타 시도 은행들이 영업에 한창입니다. 충청에도 은행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1998년 외환위기로 충청은행이 퇴출되고 이듬해 충북은행도 사라집니다.

지방은행이 없으니 지역에서 번돈의 23조 원이 역외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차입금 이자율은 타지방에 비해 0.4%나 높은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10명 중 6명 충청도 은행설립 찬성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충청인들과 기업인들의 바람이 큼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더니 10명 중 6명이 원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소상공인·서민 계층 지원을 위해서'라는 응답자가



3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역개발 추진(24.9%), 중소기업 육성·지원(20.8%)을 위해서였습니다.

수도권 편중 금융 양극화 초래

충청권 지역 금융 선순환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자본의 수도권 등 역외유출 때문입니다. 지역 생산액의 역외 유출액은 한 해 23.5조 원에 이릅니다. 충남의 GRDP 114조 원(전국 4위)의 20%나 됩니다. 지역에서 소비해야 할 돈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니 지역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악순환입니다.

더군다나 기업 1개당 대출금액을 타지방과 대비해 봤더니 유동성 공급 약화가 심각했습니다. 기업 1개

당 대출금액은 부산 2억1500만 원, 대구 2억1400만 원에 비해 충남은 절반인 1억17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 은행 설립 추진

진정한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독립적 경제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금융자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역 균형발전과도 긴밀히 연결됩니다. 지역 내 뉴딜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지역 금융이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은행의 주인은 도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충남도가 대전, 충북, 세종 등 범 충청권과 지방은행 설립에 나섰습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은 4개 시도 및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출자하고, 도민이 공모주로 참여합니다. 충청권 은행은 금융 양극화를 좁히고 지역을 살릴 선순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충청은행 설립은 도민들의 자산으로 만든 '내돈내산'인 겁니다.

/이찬선 도정신문팀장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道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산업·발전·수송 등 6개 부문

도내 발전기 최대 7기 중지 관리 도로 지정 살수차 투입

충남도는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시책이다.

도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산업·발전·수송 등 6개 부문 19개 핵심과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더 강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배출의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는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자발적 감축 협약을 확대해 추가적인 저감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발전 부문에서는 도내 총 29기 발전기 중 4기에서 최대 7기까지 가동 중지하고, 나머지는 상시 80% 수준으로 상한 제약을 실시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도권 진입 차량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을 추진하며, 도에서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생활 부문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운행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26개 구간 181.9km를 '집중 관리 도로'로 지정해 살수차, 진공흡입차를 투입할 예정이다.

/푸른하늘기획과 041-635-4423

알림

다음 신문은 12월 25일자로 특집 발행됩니다. (연간 발행 계획에 의거 12월 15일자는 쉽니다) /도정신문팀

나누면 나눌수록 사랑의 온도는 높이 올라갑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발
내년 1월 말까지 62일간
도청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
충남 148억 7000만 원 목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1일 충남도청 광장에서 열렸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연말연시 이웃 돕기 범국민 모금운동으로, 올해에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진행된다.

도내 모금 목표액은 148억 7000만 원으로 잡았다.

지나해 말부터 올 초까지 진행된 범국민 모금운동에서 거둔 ‘1인 당 모금액 전국 1위’를 이번에도 달성한다는

목표다.

지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서 충남은 202억 900만 원을 모금, 1인 당 모금액 9528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모금 총액은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이다.

시군별 1인당 모금액은 공주 1만 2760원, 보령 1만 1746원, 서산 1만 595원, 홍성 8930원, 아산 8883원 등의 순이다.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 목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이면 1도씩 올라간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우리는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62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며 “220만 도민의 따뜻한 정성들을 모아 이웃의 삶을 서로 보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복지과 041-635-4254



사랑의 온도탑 제막

충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정만평

설인호



현장 목소리 듣고 정책에 담는다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발대식

임기 2023년 11월 2년

충남도의 주요 정책을 도민에게 알리고,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하는 ‘범도민 정책서포터즈’가 활동에 나섰다.

도는 12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7기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정책서포터즈 위촉장을 수여했다.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임기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2년이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책 제안,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제안은 토론회 활동을 진행해 도민 제안을 발굴하고, 이를 오프라인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정책기획관 041-635-3130

“주중에는 주차공간, 주말에는 여가공간”

충남도청사 남측 유희부지 활용

충남도는 2023년까지 도청사 남측 임시행기장 부지(1만3238.4㎡)를 친환경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한다.

도는 지난 11월 3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도청사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다목적광장은 주중에는 부족한 청사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주말 및 휴일

에는 축제, 행사, 박람회, 놀이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가능한 도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도는 KBS·도립미술관·예술의전당 등 사업대상지 주변의 향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최종 설계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운영지원과 041-635-3570

도 고위험 감염병 신속 대응한다

최종 확인검사 자체 수행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고위험병원체 진단검사 능력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실시한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외부정도평가’ 결과, 고위험병원체 6종 탐지,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2개 평가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연구원은 고위험 바이러스에 대한

최종 확인검사를 자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 ▲페스트균 등에 대한 최종 확인검사를 자체 수행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941

연탄쿠폰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도내 2809가구 대상 쿠폰 전달

충남도는 도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외계층 등 2809가구가 연탄 쿠폰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 규

모는 총 13억 원 상당이다.

연탄 쿠폰은 12월 중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 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쿠폰 사용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이며, 연탄 판매점 또는 공장에 배달을 요청하면 쿠폰에 해당하는 양의 연탄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과 041-635-2935

백제 금속공예품 정교하고 화려해

무령왕릉 주요유물 살펴보기

용·봉황무늬 고리자루큰칼(왕)

자루 끝 고리 2마리 용

고리 안에 용 머리 장식

용·봉황무늬 고리자루큰칼(金銅製龍鳳文環頭大刀)은 널방에 흐트러진 왕의 나무널 속에서 발견되었다.

왕의 허리 왼편(서쪽)에서 출토된 칼은 발견 당시 자루부분이 머리쪽(남향)을 향해 남북방향으로 세로 놓여 있었다. 그 옆으로 왕의 ‘은허리띠’와 ‘금·은 허리 띠드리개’, ‘금·은장식 손칼’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칼 손잡이와 자루 끝 고리에는 매우 세밀하고 정교한 무늬가 장식되었다. 자루 끝 고리에는 2마리의 용이 서로 몸을 교차하여 고리 전체를 감싸고 있고, 고리 안에는 용의 머리가 크게 장식되어 있다.

이 고리와 안쪽 용의 머리 장식은 밀랍주조에 의해 서로 일체형으로 제작되었다. 손잡이의 양 끝은 각각 금판으로 감았으며, 그 위로 거북등무늬(龜甲文)와 봉황무늬 은장식을 뿔이나 단점

(鍛接)으로 이어 붙였다. 이 손잡이 중간에는 새김눈이 있는 가는 금실과 은실을 번갈아 빼곡이 감았다. X선 사진으로 관찰하면 이 금실과 은실은 각각 33회씩 감아 완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칼의 몸체는 부식되어 날의 형태가 매끄럽지 않지만 길이는 끝까지 온전히 남아 있다.

칼집 또한 상당량 부식되어 현재는 나무 일부와 칼집에 장식했던 금·은띠만 남아 있다. 이 장식되는 긴 금판 위에 은장식을 덧댄 후 못을 박아 고정하였다. 또한 칼장식 역시 금구에 은판을 팔각형으로 구부려 감아 돌린 다음 그 아래에 동판을 덧대고 못을 2개 박아 칼집에 고정하였다. 이러한 고정방식은 왕비 나무널에서 발견된 금·은장식 손칼(金銀製裝飾刀子)에서도 똑같이 확인된다.

이렇게 정교하고 화려한 고리자루큰칼은 중국에서도 같은 형식의 실물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고리자루큰칼은 무령왕릉 받침 있는 은잔과 같이 백제적 미감과 제작방식으로 만들어낸 금속공예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립공주박물관



용·봉황무늬 고리자루큰칼(왕)

충남사진공모전 대상에 '하얀 눈 석조미륵보살입상'

'충남 어디까지 가봤니' 공모전
영상·사진 수상작 51건 발표
수상작 충남관광 홍보에 활용

충남도는 '충남 어디까지 가봤니?' 영상·사진 공모전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도내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해 우수성을 알리는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886명이 참여했으며, 부문별로 영상 125건, 사진 2890건 등 총 3015건이 접수됐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활용성, 작품성 등을 중심으로 1~2차 심사를 거쳐 수상작 51건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영상 부문 대상 1건, 금상 2건, 은상 3건, 동상 8건 등 14건 ▲사진 부문 대상 1건, 금상 1건, 은상

2건, 동상 3건, 입선 30건 등 37건이며, 상금 규모는 총 2700만 원이다.

영상 부문 대상에는 충남의 아름다움을 색으로 풀어내 호평을 받은 '컬러풀 충남 : 충남의 색은 다양하다'가, 사진 부문 대상에는 눈 덮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의 멋을 담아낸 '하얀 눈 이불 덮는 석조미륵보살입상'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금상은 영상 부문 '우리가 함께하는 그곳! 충남'과 '충남 액티비티 베스트 4 알아보자!'가, 사진 부문 '파도리 해변의 추억'이 수상했다.

수상작은 충남관광 누리집(tour.chu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는 이번 수상작을 관광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선정한 영상과 사진을 활용해 충남의 멋과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진흥과 041-635-2442



<대상> 하얀 눈 이불 덮는 석조미륵보살입상. 충남 논산시 관촉동 관촉사



<금상> 파도리 해변의 추억. 충남 태안군 파도리 해변



<은상> 공산성의 겨울밤. 충남 공주시 공산성



<은상> 저 푸른 초원 위에.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들판

내포문화숲길, 세계 명품 숲길로 만든다

도, 국가숲길 지정 기념식 개최
지역경제 기여 연구용역도 추진

충남도가 자치단체 조성·운영 숲길 중 처음으로 국가숲길 반열에 오른 '내포 문화숲길'을 제주 올레길, 스페인 산티아고길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 조성한다.

도는 11월 27일 내포문화숲길 예산방문자센터 야외무대에서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가숲길은 숲길의 생태와 역사·문화적 가치, 규모 및 품질 등을 평가해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해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현재 국가숲길은 지리산 둘레길, 백두대간 트레일, 비무장지대(DMZ) 편치불 둘레길, 대관령 숲길 등 4곳에 내포문화숲길과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이 추가되며 총 6곳으로 늘었다.

국가숲길 6곳 중 5곳은 국가기관이 신청해 지정됐지만, 전국 자치단체가 조성·운영 중인 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내포문화숲길이 유일하다.

도는 국가숲길 지정 기념식을 시작으로 내포문화숲길을 제주 올레길, 스



시민들이 내포문화숲길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

페인 산티아고순례길과 같은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미순교성지와 연계하고, 충남 서산공항·서해선 복선전철·서부내륙고속도로를 통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인다.

또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숲길로 운영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서산·당진·홍성·예산 등 4개 시군, 26개 읍면동, 121개 마을 320km에 달하는 내포문화숲길은 가야산, 덕숭산, 수암산, 봉수산, 용봉산, 백월산, 오서산

등 도내 명산을 다수 포함하며 풍광이 빼어나고 산림 생태적 가치도 높다.

이와 함께 서산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 수덕사, 개심사, 임존성, 대흥관아, 면천읍성, 추사 김정희 고택, 김좌진 장군 생가, 한용운 선생 생가 등 역사·문화 유적도 풍부하다.

주제별로는 ▲내포 역사 인물 동학길 ▲백제부흥군길 ▲원효 깨달음길 ▲내포 천주교 순례길 등 4개로 구분한다.

/산림자원과 041-635-4501



오늘을 딛고 내일의 희망을 부르자

장항선 연가 - 주포역

부득이 내일을 들춰볼 일 있나.
토정비결로도 간 보기 어려워도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까.

무릇 가장 나쁜 경우라도 백성은
언어먹고 빌어먹을 권리는 가져야
언어먹을 힘만 있어도 살만한 세상.
(내일의 태양-주포역)

페역인 주포역 일원은 토정비결을 지은 이지함 선생과 관련된 곳이 많아 사람들의 발길이 잦다. 보령 청라에서 태어난 선생의 묘소도 주포면 국수봉 기슭에 있다.

토정비결은 정초에 내일의 운세를 보면서 답소하던 한국인의 문화였다. 내일은 밝은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둔게 하는 말이다. 연말이면 거리에 사람들이 넘쳐나던 때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희망으로

부풀었던 시절이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스칼렛 오히라의 대사로도 어려울수록 운명을 개척해 가자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지만 토정비결이라고 내일을 함부로 들춰볼 수 있겠는가.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때에 토정 이지함의 '걸인청'을 생각한다. 현감으로 재임 시 정부 보유미를 풀어 굶는 백성을 도운 정책이었다. 그러나 걸인청은

거저 언어먹는 기관이 아니었다. 건강한 자는 고기잡이나 땅을 개간하고, 노약자는 새끼라도 꼬게 하면서 마무를 공간과 음식을 나누었다. 적정한 일과 분배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 적극 행정이었다. 코로나와 성장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요즘 새겨야 할 일이었다.

/글 충청남도문인협회 이심훈
/그림 여행스케치회 흥기욱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에서!!
충청권 체육회, 유치 총력 결의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1일 충북도청에서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체육회와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동유치위원회 이시중 위원장과 이송찬 대전광역시체육회장, 정태봉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 윤현우 충청북도체육회장, 김덕호 충

청남도체육회장이 참석하여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총력을 펼칠기로 상호 합의했다.

충청권 체육회는 '체육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유치 의지를 모으기 위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체육진흥과 041-635-3861

충청권 지방은행 필요성 한목소리

도-전국금융노조 금융노동포럼
금융 양극화 문제 해소 기대

충남도와 전국금융노조 관계자들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충남도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1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지방은행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금융노동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과 함께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정책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발표에서 방만기 충남경제동향 분석센터장은 ▲금융 양극화 문제 및 지역 불균형 완화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지역 경제 선순환 및 광역 지자체 역할 강화 등을 제시하여 지방은행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정토론에서 권희원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도입,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은행의 어려움을 지자체 금고은행 지방은행으로 법제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주거래 의무 마련 등 국가 균

형발전 측면의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송무경 도 경제정책과장은 “충청지역의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증가율은 479.4%(2015~2020)로 지방은행 소재 지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 면에서 지방은행 설립 시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60%(시중은행 45%) 등의 특성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방은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정책과 041-635-3311

틀렸다고 말 들었을 때 희열을 느껴야

충청의 기업가 정신

인텔, 메모리반도체 철수

PC용 CPU 생산 '집중'

지적 적극 수용해 성장 발전

기업가는 늘 불안하다. 특히 자신의 사업모델과 의사결정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칭찬해주기를 바란다. 반면 나의 사업 전략과 결정에 대해서 틀렸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쾌해진다. 그러나 기업가는 틀렸다는 말을 기쁘게 받아 들여야 새로운 성장을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인텔은 원래 메모리반도체 전문 기업이었다. 1968년 설립한 이래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1972년 만든 1키로바이트 1103D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메모리 반도체였다. CEO 인 앤디글로브는 “인텔은 메모리 산업을 대표하며, 메모리 칩이 인텔을 의미한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NEC, 미쓰비시, 도시바 등 일본기업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저가 공세로 시장 점유율과 이익이 급속히 줄어들었다. 이 때 인디 글로브는 인텔

의 공동창업자인 무어와 그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 때 무어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했다. “지금까지 우리 전략은 틀렸다. 이제 인텔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앤디 글로브는 당장 메모리 사업에서 철수를 결심했다. 그리고는 즉시 메모리 생산라인을 PC용 CPU 생산라인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는 인텔은 마이크로 컴퓨터 회사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모든 회사의 조직과 시스템을 마이크로 프로세스 개발에 몰입하였다. 이를 통해 인텔은 CPU 분야의 절대 강자가 되었으며 40년 넘게 반도체 분야의 1위를 고수하게 되었다.

기업가는 내가 틀렸음을 알아챘을 때 기뻐해야 한다. 틀렸음을 아는 순간 기업가는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누군가가 나보고 틀렸다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이 내 사업의 빈틈을 보완해주는 고마운 말이라 생각하고 기뻐해야 할 것이다.



이종원 호서대학교 교수

아세안시장 진출 교두보 넓힌다

도-서자바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경제·관광·친환경·인재개발 등 협력

충남도가 세계 최대 이슬람시장인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진출 교두보를 넓힌다. 도는 11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을 통해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세안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경제·문화 중심지로 꼽히는 서자바주와의 관계를 교류 제한 4년, 교류의향 체결 1년 만에 ‘우호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외교를 본격 추진한다.

협력 분야는 ▲경제 및 관광 개발 ▲친환경 개발 ▲인재 개발 등이다. 도는 이번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도내 기업 현지 진출, K-팝

활용 관광객 및 유학생 유치 등 경제·문화 분야부터 교류·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서자바주 공무원 충남 초청 연수 ▲서자바주 개최 동아시아지방정부회담 참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통상과 041-635-2254



도는 온라인을 통해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부업 대출 잔액 전년비 9.1% ↓

2021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충남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인 대부업법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내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180개로 지난해 12월 말(179개) 대비 1개 증가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2736명으로 집

계돼 지난해 말 3039명 대비 9.9%(303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9.1%(27억 9100만 원) 감소한 277억 3700만 원이며, 신용 대출이 127억 1800만 원, 담보 대출이 149억 9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책과 041-635-2212

충남혁신센터, 창업기업 성과 공유
스타트업 혁신가의 날 개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강희준)는 12월 1일 '제5회 스타트업 혁신가

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중앙대학교 김상윤 교수의 메타버스 특강과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성과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충남센터는 그동안 운영한 액셀러레

이팅 프로그램, 판로지원, 기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투자 및 매출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창업기업 12개사를 선발하고, 우수기업 인증패를 수여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17

정의로운 산업 전환 노동정책 추진한다

도·민주노총 노·정 정책 협약

충남도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11월 25일 도청 상황실에서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사회 양극화 해소 및 노동자 권리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노·정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9월부터 민주노총 측의 정책 요구 안건 7대 과제 및 19개 세부 사항에 대한 정책 협의를 실무 단위에서 지속 추진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 존중의 민주적 노정관계 형성과 노

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정책 추진 및 각 산업·업종별 노동 현안 등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협력 과제는 ▲노·정 관계 재정립 ▲노동정책 예산 확대 및 노동 중심 행정체계 구축 ▲생활임금 확대 적용 ▲정의로운 산업 전환 ▲복지 분야의 사회공공성 강화 및 전달체계 혁신 ▲공공부문의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 등 7가지이다. 도는 앞으로 '정의로운 산업 전환 위원회(가칭)'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2243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도내 철새도래지 18개소 121km 구간 입·출입 통제 시행(21.10.1 ~ 22.3.31)

철새도래지 국민행동수칙



국민여러분!

철새도래지 주변 산책과 낚시를 금지(자제)하시고, 축산관련 차량은 반드시 우회 통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철새도래지 : 병천천(천안), 봉강천(천안·아산), 곡교천(아산), 아산호(아산), 봉선저수지(서천), 금강호(서천), 논산천(논산), 송정저수지(부여), 천수만(서산), 도당천(서산), 해미천(서산), 잠흥저수지(서산), 간월호(홍성), 부남호(태안), 석문간척지(당진), 대호지(당진), 삽교호(당진), 무한천(예산)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철도망 건설 등 30개 과제 추진

충청권 4개 시도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충청권 메가 경제자유구역 조성
광역철도망 등 30개 사업 추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산업경제·광역인프라·사회문화 3대 목표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

한 9대 전략과 30개의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됐다.

충청권 4개 시도는 11월 29일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기반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유연하게 확장되는 초광역 스마트 인프라 조성 ▲지역성 기반 충청민 문화관광 향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라는 3

대 목표가 제시됐다.

대표 추진사업으로는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연구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충청권 메가 경제자유구역 조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충청권 통합 운용 ▲공동캠퍼스 설립 공유대학 구축 ▲내포 뉴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청권 국가탄소중립 클러스터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사통팔달의 초광역 간선도로망과 광역철도망의 완성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광역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수자원(공업용수/생활용수) 통합 관리체계 구축 ▲스토리메이킹 활용 문화관광 통합 브랜드 구축 ▲국제회의의 복합지구 중심의 R&D 특화 MICE 산업 육성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 유치 등도 추진한다.
도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비전과

목표 등을 바탕으로 내년 충청권 메가시티 거버넌스 구축 방안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여건 분석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구상을 현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1월 4개 시도지사의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합의 이후 메가시티의 당위성과 비전 제시 및 사업 발굴을 위해 추진했으며, 12월 13일 완료 예정이다.

/정책기획관 041-635-3136



보령 녹도 초등학교 학생들과 인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린다' 행사에 참석, 메타버스를 통해 가상 경주 여행을 한 충남 보령 녹도 초등학교 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AI 로봇이 응급상황 알린다

도-KT AI 케어로봇 운영

충남도가 '자살예방 AI 케어로봇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케어로봇 돌봄사업은 도와 KT가 지난 3월 맺은 '충남형 자살예방 대책 공동연구'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내년 10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도는 지난 11월 29일 우물증, 독거노인 등 청양군 내 자살취약군 10가구에 AI 케어로봇을 설치했다.

AI 로봇의 주된 기능은 ▲응급알림 ▲복약관리 ▲말벗 대화기능 ▲음악감상 ▲일정알림이다.

AI 로봇은 대상자의 모든 대화(음성), 움직임(영상) 등 데이터를 추적하고 분석해 대상자에게 이상 상황



AI 케어로봇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감지되면 주간에는 보호자 및 보건소에, 야간 및 주말에는 KT 관제센터에 연락한다.

응급콜을 받은 보호자, 보건소, KT 관제센터는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한 뒤, 응급시 119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스피커 기능 자동 실행, 보호자 콜백 요청, 치매예방퀴즈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4

충남자치경찰 현장의 목소리에 답하다

주민, 경찰 건의사항 토대로
기관 협력방안 마련·시행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밀착형 치안정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시군별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주민대표와 현장경찰관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지난 11월 23일 제4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도경찰청·도청·도교육청

간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금지 관련 도경찰청과 도교육청은 시·군 학교별로 임시승하차존을 신청하면 심의를 통하여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 30km/h 지정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정책인 만큼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준수하도록 했다.

마을단위 이면도로의 과속방지턱이 규정과 달리 설치돼 있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청 도로관리팀에서 연 2회 정기적인 시설물 설치현황을 조사해 개선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밖에 야간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등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응급개입팀 6명을 북부권에 우선 운영하기로 했으며, 야간 당직의사 확보 등 현장경찰관의 건의는 대책을 마련하는 즉시 시행 및 중·장기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치경찰협력과 041-635-5895

충남도청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인증현판 제막식 개최

충남도청 민원실이 행정안전부가 인증하는 올해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도는 11월 30일 도청 1층 로비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행정기관 민원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매년

우수기관을 선정, 그 지위를 3년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도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국민행복민원실 지위를 인정받는다.

도는 심사에서 주차장 민원 배달 서비스, 공공시설 감면 서비스 통합 시스템 개시 등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자치행정과 041-635-3679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필요성

자치분권시대 더 좋은 삶
자치단체 감시·견제하려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필요
지방자치법 개정 독립·투명

지방자치의 근간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예산을 심의·편성하는 것은 물론 집행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즉 재해예방을 위해 자신의 마을에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고, 어느 곳에 사방댐을 건설하고, 다리를 놓을지를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만들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지방의회를 구성해 지방정부를 꾸미는 것이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서 예산과 인사권의

독립이 완전히 이뤄질 때 진정한 자생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충남도와 도의회가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은 발 빠른 대처로 평가할 만하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명선 도의회 의장은 10월 초 도청 상황실에서 인사교류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해 정기·수시인사 교류, 신규 채용시험 도 위탁 수행, 당직 운영과 초과근무시스템 등 도에서 통합 운영 등에 합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분야별 운영에 드는 비용은 기관별로 소속 인원에 비례해 산정,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완전 분리·운영 시까지 현 체제를

유지한다.

이번 협약은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처와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이양됨에 따라 추진됐다.

그동안 지방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집행부인 자치단체장이 행사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반쪽짜리 지방자치 제도를 운영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전국 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사무처와 사무국 내 직원들을 두고 업무를 관장해 왔다.

하지만 지방의회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소속으로 편제돼 있어 독립적인 업무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의형 충남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충청투데이 충남본부장

따뜻한 관심 결핵없는 세상 만든다

크리스마스 썸 모금 운동

충남도과 대한결핵협회가 결핵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및 결핵 예방홍보를 위해 크리스마스 썸 모금 운동을 전개한다.

이필영 도 행정부지사는 11월 30일 도청 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에 성금 100만 원을 전달하고, 크리스마스 썸을 증정받았다. 올해는 '놀면 뭐하니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썸'을 주제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담아 모금활동을 진행한다.

도는 내년 2월까지 목표 모금액(600만 원) 달성을 위해 직원 및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크리스마스 썸 운동은 1932년 캐나다 선교사 셔우드홀이 처음 시작한 판매 모금 활동이다.

/감염병관리과 041-635-4368

도, 적십자사 충남지사에
특별회비 500만원 전달

충남도는 1일 도청에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특별회비 500만원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내년 모

금 목표액을 19억 98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집중모금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다.

적십자 회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자치행정과 041-635-3595

“한국어 못해도 119로 전화하세요”

충남소방 외국어 통역서비스
11개 외국어 통역 지원 중



올해 2월 17일 천안시에서 중국인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기간이 지난 후 PCR 검사 절차를 몰라 119에 신고했다. 119상황실에서는 외국어 통역봉사자와의 3자 통역을 통해 선별진료소, 검사방법, 이동 수단을 안내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지난 1월 14일 러시아인이 119상황실로 신고하였으나 신고·접수 요원이 러시아어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 통역봉사자와 3자 동시통역을 연결했다. 신고자는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

충남소방본부는 2014년 9월부터 119 외국어 자체 통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영어, 러시아어를 비롯한 11개 외국어 통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18명의 통역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통역사들이 처리한 119 통역서비스는 169건이다.

119에 신고한 외국인이 사용한 언어는 영어(16.2%), 러시아어(9.0%), 베트남어(8.3%), 중국어(6.3%), 우즈베크어(5.5%) 순이었고, 신고 시간은 새벽 0~6시(26.5%)가 가장 많았다.

충남 119상황실은 한국어를 못해도 통역이 가능하도록 동시통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소방본부는 아직 서비스가 안 되는 몽골어 등의 통역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661

충남 119구급차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도, 도내 구급차 128대 전수조사
세균, 코로나 검사결과 깨끗

충남도내 운행 중인 119구급차는 코로나19 등의 병원체에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의 의뢰를 받아 지난 4-9월 도내 119구급차 128대 전수를 대상으로 세균 4종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도민과 구급대원의 감염병 노출을 사전에 차단해 2차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는 응급이송과정 중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후두경블레이드, 기도유지장비, 운전석 핸들 및 패드 부품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961

충남소방복합시설 청양 일원 건립 충청소방학교, 항공대 등 입주

충남소방본부는 소방복합시설 건립공사 건축분야 낙찰자로 (주)서한(대표 정우필)이 선정, 12월 1일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충남소방복합시설은 청양군 일대 38만 8825㎡ 부지에 건물 10개 동 규모로 건설되어 충청소방학교, 항공대, 장비정비센터 등이 입주하게 된다.

완공은 2024년 3월이 목표이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565



119상황실과 현장지휘팀 뭉쳤다

충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소방서 현장지휘관과의 워크숍을 운영했다. 권역별 4개 소방서 단위로 각 하루씩 나흘간 진행된 워크숍에는 도내 16개 소방서 현장지휘팀장 및 안전점검관, 화재조사요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재난현장 대응 및 상황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의견을 공유했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541

도, 재정운용 계획성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 5000만원 확보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 결과 계획성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재정분석 제도 시행 이래 작년도 최초 효율성 부문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 계획성 우수기관으로 선정

돼 2년 연속 재정운용 우수 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도는 재정효율성 분야에서 지방세수입비율(24.96%), 지방세수입 증감률(32.72%), 지방세징수율(98.85%), 지방보조금비율(0.90%), 지방보조금 증감률(-0.94%), 자체경비비율(3.79%) 등 대부분의 지표가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특히 재정계획성 분야에서는 중기재정계획변역비율(99.08%), 이불용액비

율(1.10%) 등 재정계획 및 집행 관리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혁신도시 기반시설 조성 등 당면 현안 과제 해결은 물론 경상경비 절감, 전략적 예산투자 등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 자체 세입기반 지속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증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매년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비교·분석·평가하는 제도이다.

/예산담당관 041-635-3162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계획안 나왔다

설계 공모 심사 마무리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와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는 공동 추진 중인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및 가든센터 신축 공사’의 설계 공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해안의 들과 언덕과 숲

이 이어지는 정원-안면 갯마을 정원’ 조성 계획안이 최종 선정됐다.

전면부 단차를 건축물 배치를 통해 극복한 점, 갯마을이라는 테마로 다양한 경관 연출을 계획한 점, 가든센터 내 실내 정원을 통해 1·2단계 구역 간 연계를 도모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종 선정된 계획안을 제안한 업체는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및 가든센터 신축 공사(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사업 2단계)의 실시설계를 책임질 예정이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가 관리하는 안면도 지방정원은 태안군 안면읍 일원에 시설지구, 숲치유지구 등 21.7ha 규모로 조성 중인 정원으로, 오는 2024년 개원할 예정이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041-635-7264

“우리 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한국쌀전업농 충남도대회 개최

충남도는 11월 27~28일 천안 일원에서 농업의 무한한 가치를 지키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기 위한 ‘제16회 한국쌀전업농 충남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충청남도의 원동력! 다시 뛰는 쌀전업농!’을 주제로 쌀산업의 위기 및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날인 27일에는 식전공연을 시작

으로 쌀소비촉진 캠페인, 밥 짓기 경연대회가 이어졌다.

시상식에서는 김창겸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과장 등 6명이 한국쌀전업농충남연합회장 감사패, 천안시 쌀전업농 김정희 씨 등 14명이 도지사 표창장, 충남연합회 쌀전업농 이열용 씨 등 4명이 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식량유통과 041-635-4045

석전제 지낼 때 필요한 ‘축문’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충남의 도난문화재

청양향교 축문 및 흥기 도난

매년 석전제에 사용하던 고서

도난이후 옮겨놓은 자료 사용

청양향교는 조선 전기에 세워진 국립교육기관이다. 처음 지은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남아 있는 건물들은 조선 중기 이후의 것으로 최근까지 여러 차례 수리하였다.

향교에는 「청금록」·「교공완문」·「완문」·「수호촌립안」·「교공완납안」·「강학절목」·「교둔전담문권」 등 여러 점의 고문서가 남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009년 축문과 흥기 1점, 소학 2책, 공자행적도 1점이 도난당하였다. 이 가운데 축문과 흥기는 매년 봄과 가을 대성전에 모셔진 여러 성현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올리던 의식인 석전제에 사용하던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석전제를 지내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고구려 소수림왕이 태학을 설립한 372년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서울의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에서는 해마다 봄과 가을 2회 모셔지고 있다.

이 석전제를 지낼 때 필요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

으나 그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흥기’와 ‘축문’이다. 흥기는 향교에서 지내는 석전제 등의 의례를 진행함에 있어 그 순서와 절차를 미리 정해놓은 식순의 하나이며, 축문은 석전제를 모실 때 대성전에 모셔진 성현(聖賢)에게 축원을 드리는 글이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축문과 흥기는 매우 쉽고 흔하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연유에서든 고사를 지낼 때, 집안 제사를 지낼 때, 전국 모든 서원과 향교에서 봄과 가을에 제례를 올릴 때, 시골 동네 마을 제사를 지낼 때 등 축문과 흥기가 쓰이는 곳은 아주 다양하고 다채롭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그곳에는 그곳에 맞는 축문과 흥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도난당한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원본은 도난 되었으나 그 원본을 컴퓨터로 옮겨 적은 것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항상 강조하고 있고 또 한번 강조하고 싶다. 우리 손에는 훌륭한 사진가가 들려있다. 찍고 기록하여 많은 자료를 남겨두는 것,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을 믿고 유물을 맡기는 것 이것이 문화재 도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생각한다.

/서흥석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물관운영부장



청양향교 대성전



보령에 세계 최대 블루수소 플랜트 짓는다

도, 보령시·중부발전·SK와 협약
5조 투입, 2025년 25만톤 생산
수소전지·자동차 충전용 공급

충남에 세계 최대 규모 블루수소 플랜트가 들어선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균형 뉴딜투어 충남 행사에서 도가 밝힌 '충남 에너지 전환, 그린뉴딜 추진 전략'이 구체화 되는 것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에너지산업 육성에 충남이 앞장선다.

충남도와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SK E&S는 11월 26일 서울 롯데호텔 대회의실에서 '보령 친환경 청정수소 생

산 기반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탄소중립 및 친환경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보령시는 탈석탄, 탄소중립 도시로의 성공 전환을 위해 각종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중부발전은 부지를 제공하고, SK E&S와 함께 수소 생산·유통·활용 인프라 구축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으로 보령 친환경 청정수소 생산 기반 구축 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SK E&S는 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북부화처리장 62만여㎡의 부지에 블루수소 생산기지를 건설한다.

이를 통해 연간 25만 톤의 수소를

생산, 20만 톤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투입하고, 5만 톤은 액화 후 자동차 충전용으로 공급한다.

블루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20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는 포집 및 액화한 뒤 액화이산화탄소 수송 선박을 통해 해외 폐가스전에 저장, 탄소 발생 저감 효과도 올린다.

도는 블루수소 플랜트가 건설되면 300개 일자리 신규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또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기존 부생수소생산거점, 산업부의 당진·태안 수소 도입 계획과 연계해 국내 최대 수소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과 041-635-2934

도청 레슬링팀 빛났다

전국대회서 금 2·은 4 획득
개인전 김현주 선수 금메달

충남도는 도청 레슬링팀이 11월 19~25일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전국레슬링종합선수권대회'에 참가해 금 2, 은 4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개인전에서 김현주(86kg) 선수가

금메달을, 정의현(125kg), 최인상(61kg), 한대길(74kg), 황은주(76kg) 선수가 은메달을 각각 따냈다.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충남도청 레슬링팀의 위상을 떨쳤다.

아울러 최우수지도자상에 이경환 감독이, 최우수선수상에 김현주 선수가 선정돼 대회를 빛냈다.

/체육진흥과 041-635-3858

도청 태권도팀 세계대회 입상

이진영 선수 동메달 획득

충남도는 도청 태권도팀이 11월 18~22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제1회 세계농아인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이진영(-67kg) 선수가 겨루기와 품새 부문에, 이다솜

(+67kg) 선수가 겨루기 부문에 각각 출전했으며, 이진영 선수가 품새 부문에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9년 창단한 도청 태권도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 합동팀으로, 현원은 장애인 선수 2명과 비장애인 선수 7명, 지도자 1명 등 총 10명이다.

/체육진흥과 041-635-3858



자살예방 생명존중 강연 개최
충남도는 11월 26일 청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생명사랑 인식확산 및 생명존중 불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생명존중 순회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석규 청양군보건소의료원 자살예방사업 담당자는 강연을 통해 노인멘토링 사업 설명 및 자살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4

충남문화상 수상자에 정진석·이봉연

문화예술 부문 공로 인정

충남도는 '제59회 충청남도 문화상 심사위원회' 결과, 정진석 한국문인협회 충남지회 평론분과 이사과 이봉연 상지대 석좌교수를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이사는 42년간 시문학 창작과 평론 활동을 하면서 시집과 평론집 등 다수의 문학 관련 서적을 집필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봉연 상지대 석좌교수는 오랜 시간 한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훈민정음'을 연구했으며, 한글의 미적 감각을 살리고 창조적 개념을 불어넣은 고유의 서체 '우당체'를 개발해 서예와 미술을 넘나드는 한글문화의 고유성을 부각한 바 있다.

충남문화상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상



패를 수여하며, 시상식은 12월 27일 예정이다.

충청남도 문화상은 지역 문화를 창달하거나 향토 문화를 선양한 도민 또는 출향인에게 주는, 지역 문화인들의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

/문화정책과 041-635-3812

25년 딸기 연구 이인하 연구사 지방행정의 달인 국무총리상

충남도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이인하 연구사가 '제11회 지방행정의 달인' 대회에서 '딸기 종자독립의 달인'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인하 연구

사는 25년간 딸기 연구에 매진하며, 딸기 신종종 개발·보급으로 15년 전 9%에 불과했던 국산 품종 보급률을 96%로 높였다.

이를 통해 로열티 350억 원 절감 및 수출액 12배 성장을 이뤘으며, 국내 최초 바이러스 없는 조직배양묘 보급 체계 확립 및 우량묘 생산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해 농가소득을 190% 증대

시켰다. 도 농업기술원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하며, 전국 최고의 지방 행정력을 갖춘 우수 기관으로 자

리매김했다.

/충남농업기술원 041-635-6349

성평등 언어 이렇게 사용하세요



성차별 단어	성평등 단어	제한 이유
젖병	수유병	여성의 신체 부위를 표현하기 보다는 수유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는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녹색어머니회	등곳길안전지킴이	어머니만이 아동의 양육자라는 고정관념을 유발하고 다양한 가족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앞치마	앞반이 보호티	앞치마는 가사일의 전담자가 여성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성차별적 용어로 성별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앞반이 보호티로 표현

● 슬로건 :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출처 :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더 가까이, 더 빠르게, 더 촘촘하게
충남자치경찰이 뛰고 있습니다!

③ 충남도내 관광지 교통안전시설 개선

'논산 탐정호 교통 사망사고 현장점검'

김경장님, 사고 차량은 이 방호 울타리를 충격 후 저수지로 추락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이 도로는 저수지 쪽으로 급격히 굽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구간은 안전운전도 중요하지만,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게 필요하겠어.

'탐정호 사고관련, 관광지일대 시설개선 및 예방대책 회의'

현장점검을 통해 교통 및 도로안전 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전시설이 튼튼하고 촘촘하게 개선돼 앞으로 사고 날 일은 없겠구먼.

게다가 신속하기까지! 충남자치경찰 짱이리니까~

실 태

충남도내 관광지 교통 사망사고 발생

일시·장소	피해사황	사건개요
2021.4.15.(목) 00:26 탐정호 인근 수변길	사망 5명	방호울타리 충격 후 저수지로 추락

탐정호 일대 뿐만 아니라 **충남도내 관광지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확대 추진**

개선 ①

탐정호 일대 교통안전시설 개선

※ 관련 조치 개선 사항 중 일부 소개

개선 사항	이동식 단속 부수 설치	가드레일 보강
사고장소 7중 (보행자 보호 울타리, 과속방지턱 설치 등) 주변도로 8중 (이동식 단속 부수 2개소 설치 등)		

개선 ②

충남도내 관광지 교통안전시설 개선

점검장소	총 35곳(저수지 16, 계곡 3, 해수욕장 2, 방조제 4, 항-포구 10)
점검결과	개선필요 83지점 선별
조치내용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지휘 하에 충남경찰청, 도로관리청과 협업하여 개선 추진

예방 활동 중심으로 **도로·교통안전 강화**

‘남연군묘에 파묻힌 가야사’ 기록 입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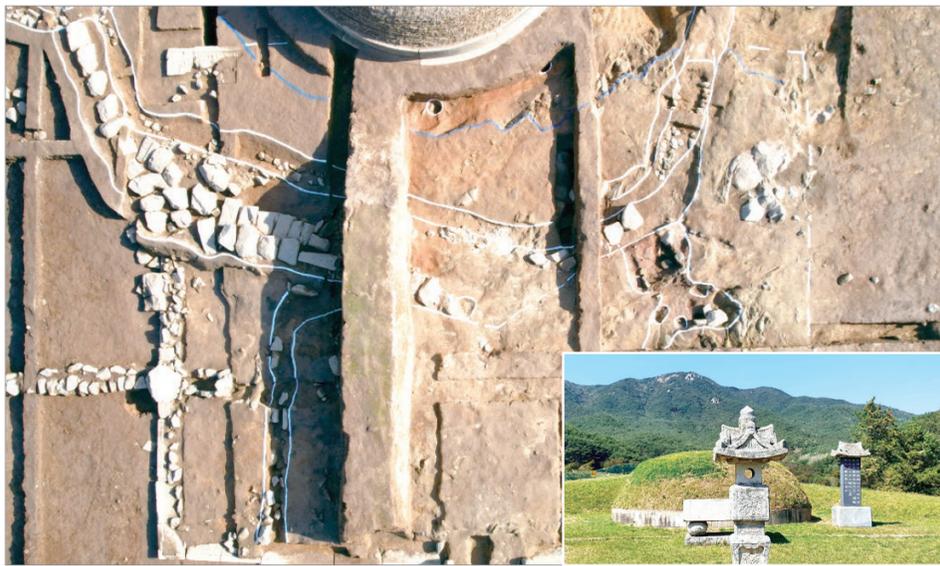
고려 건물지와 불상·탑 옥개석 발굴돼
‘흥선대원군이 철거’ 매천야록 기록 입증

[예산] ‘흥선대원군이 가야사에 있던 탑을 철거하고 남연군 묘를 이장했다’라는 매천야록의 기록이 입증돼 이목을 끈다.

충남 예산군은 충남도지정 기념물 제150호 예산 가야사지 발굴조사 성과를 지난 2일 공개했다. 재단법인 동방문화재연구원은 흥선대원군이 가야사에 있던 탑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아버지 남연군 묘를 이장했다고 기록된 매천야록을 토대로 남연군 묘 주변을 대상으로 8차 조사를 진행했다.

군에 따르면 조사에서 고려 전기부터 조선 중기에 건립된 건물지, 담장지, 축대 등이 확인돼 사역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묘역 내에서 고려 전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축대와 가구식 기단 건물지 1동이 확인됐다.

아울러 석조불상, 옥개석, ‘가량갑사’ 명 암기와, 장식기와, 연화문·일휘문 수막새, 당초문·일



남연군묘 주변에서 발굴한 고려시대 건물지 모습. 작은 사진은 남연군묘

휘문 암막새 등이 출토됐다.

특히 출토된 탑 옥개석 조각 등은 ‘이곳에 세워졌던 탑을 부수고 남연군 무덤을 조성했다’고 전하는 ‘매천야록’의 기록을 실제로 입증하는

근거다.

군은 향후 탑의 규모나 형태, 건물 양식 등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군 제공

충청인의 詩香

침묵(沈默)을 깨다

어둠을 깨고 나와
공중을 나는 새는
침묵을 벗은 채로
자유로이 날아다닌다

침묵은
바람이 불어도
날리지 않고
사랑처럼 헤프지도 않으니

겨우내
땅의 침묵이 있어
봄의 새싹이
눈부신 태양빛에 잠을 깨듯

자유로운 새여
마음 속 침묵의 밭으로 날아가
평온의 씨앗 하나
던져 주렴

흔들림 없는 영혼으로
아침 산처럼 밝고 탄탄한
침묵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해다오



이명희 시인

·시집 ‘겨울감나무’ 외, 세계문학상, 제1회 충남시인협회신인상 수상



공주시, 대한민국 대표 축제도시로 우뚝 서다

제15회 피너클어워드 2개 부문 수상
겨울 군밤축제 금상·백제문화제 은상

[공주] 충남 공주시의 대표 축제인 ‘겨울공주 군밤축제’와 ‘백제문화제’가 제15회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는 세계적 축제와의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가 2007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공주시의 겨울공주 군밤축제가 머천다이즈부문 금상을, 백제문화제로 대표 프로그램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로 인정받는다. 지역 특산물인 알밤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해 경제 활성화 측면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백제문화제 ‘웅진판타지아’는 올해 세계유산인 공산성 금서루 일대를 공연장으로 사용한 것이 큰 효과를 거뒀다.

/공주시 제공



제15회 피너클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한 공주시의 ‘겨울공주 군밤축제’

열여섯의 염전 인부, 소금꽃이 되다

정당2리 김경태 노인회장 자전 수필
‘김경태의 삶. 소금꽃으로 피어나다’ 출판

[태안]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 2리 김경태 노인회장의 자전 에세이 ‘김경태의 삶. 소금 꽃으로 피어나다’ 출판기념회가 지난달 21일 안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이 책에는 안면도에 있는 염전에서 잔심부름

만 하던 열여섯 살 어린 소년이 천일염을 만들어 내는 소금 장인이 되기까지의 소금과 함께한 40년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 염전의 변천사와 삶을 함께한 소금 장인의 이야기는 소금에 대해 알아가는 재미와 함께 저자의 굴곡만민이나 많은 고난의 역사가 있는 안면도에 대해 알아가는 즐거움을 선사해 주고 있다는 평이다.

이번에 펴낸 자전 에세이는 그가 소금밭에서

성실과 근면을 삶의 모토로 살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고된 시절의 역경을 딛고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마침내 소금꽃으로 피어나는 눈물의 기록이다. 신문용/주간태안신문



김경태 회장의 자전 에세이 ‘김경태의 삶. 소금 꽃으로 피어나다’

천안, ‘빵빵데이’ 상표 출원·등록
‘빵의 도시’ 대표 축제 발판 다져

[천안] 충남 천안시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빵빵데이’에 대한 상표 출원·등록을 마치고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화와 인지도 높이기에 나섰다.

시는 10월 10일 날짜 숫자 중 숫자 0, 즉 ‘빵’이 두 번 반복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10월 10일을 ‘빵빵데이’로 자체 정하고 지난 7월 상표출원에 착수해 특허청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지난 12일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천안시는 빵빵데이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한을 향후 10년간 가지게 됨에 따라 빵빵데이가 천안시만의 특색있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발판을 더욱 견고히 다지게 됐다. 제3자는 동일·유사한 상표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올해 처음 빵빵데이를 개최해 타 행사와는 차별화한 빵지순례 등 신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천안에 있는 우수한 빵집과 맛있는 빵을 전국으로 알렸다.

/천안시 제공

‘사랑방손님과 어머니’를 낳은 천재 극작가

예향 충남, 그 맥을 찾아서(31)

- 금산 극작가 임희재

휴전 후 도시 철거민 생활상 그리며

동시에 구수한 서민들의 인정 부각

철저히 실존에 기반한 대중적 작품

1919년 금산 남이면에서 태어난 천재 극작가 임희재는 일본 니혼대학 법과를 중퇴하고, 해주에서 극단 활동을 하다 금산군청, 금산산업고 교사, 신문사 기자 생활을 했다.

195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기류지(寄留地)’가 당선돼 등단했고, ‘복날’·‘무허가술집’·‘고래’ 등의 단막극과 장막극 ‘꽃잎을 먹고사는 기관차’를 썼다.



1961년부터 10여 년은 그의 전성기였다.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은곰상을 수상한 ‘마부’를 비롯해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연산군’, ‘임여인간’, ‘황진이와 첫사랑’, ‘종전차(終電車)’ 등 70여 편의 시나리오를 썼다. 60년대 영화는 대부분 그가 쓴 각본에 의해 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0년대 초 인기 드라마 ‘아씨’도 그의 작품이다.

월간지 ‘여성계’ 주간, 한국문학가협회 중앙위원, 극단 ‘산하’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1962년 ‘사랑방손님과 어머니’로 1회 대중상 각본상을 받았고, 1963년 ‘혈맥’으로 청룡영화상을 받았다. 또 아시아영화제 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영화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지만 1971년 52세를 일기로 짧은 생을 마감한다.

/이정우 충남문인협회 회장

충남도립 더 행복한 충남
도민을 위한 도정을 잇다

발행인 문화체육부지사 편집인 공보관
창간 1990년 12월 15일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안내 041-635-2035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동물의 도덕성’을 주장한 외암 선생

내포칼럼



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조선의 ‘강문팔학사’ 외암 이간 관직 사양하고 평생 학문에 전념 남당 한원진과 이어간 ‘호락논쟁’

“사람·동물 모두 도덕성을 지니며 본질이 선해 기질 차이가 없다”며 본성 합리성 강조한 그의 ‘주리론’ 200년 이어지며 후대 사상에 영향

이간(李柬, 1677~1727)은 5대조 때부터 충남 아산의 외암마을에 세거했다. 아버지 이태정은 군수였는데, 그는 큰아 아버지 이태형에게 입양됐다. 열 살 때 서울에 올라가 수년 동안 학문에 종사했다. 다시 낙향했다가 30세에 재차 상경해 농암 김창협 및 삼연 김창흠 형제와 사귀었다.

32세 때는 청풍으로 수암 권상하를 찾아갔는데, 수암은 우암 송시열의 뒤를 이어 성리학의 종장(宗匠)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 문하에서는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로 불린 대학자가 8명이나 배출됐다. 이간도 그중의 하나였는데, 그들 선비는 과거에 미련을 두지 않고 평생 학문에 전념했다. 특히 이간은 학행(學行)으로 명성이 높아 여러 차례 관직에 제수됐으나 모두 사양했다.

숙종 35년(1709), 이간은 동문이던 남당 한원진의 편지를 받고 매우 깊이 있는 학문적 논쟁을 시작했다. 그해 초여름, 보령의 한산사에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 상대의 견해를 상세히 물었다. 이후 둘 사이의 논쟁은 3년 동안 편지를 왕래하며 이어졌으나, 스승 권상하의 제지로 중단됐다. ‘강문팔학사’인 한원진, 이간, 윤봉구, 최징후, 성만징, 현상벽, 채지흥, 한홍조 등이 모두 그 논쟁에 끼어들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세상에서는 이를 두고 ‘호락(湖洛) 논쟁’이라고 하였다. 충청도(湖) 선비들은 대체로 한원진을 추종했고, 서울(洛) 선비들은 이간을 따랐다. 그런데 논쟁의 중심인물이었던 이간과 한원진은 모두 충청도에 살고 있었으니, 무척 흥미로운 일이었다.

논쟁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같은지 다른지’를 둘러싼 것이요, 또 하나는 ‘희

로애락의 감정이 아직 표현되지 않은 상태(미발(未發)·어떤 감정이 아직 생기지 않음)에서도 선악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었다. 이간은 동물도 사람과 한가지로 도덕성을 가지며, 마음은 그 본질이 착하므로(純善) 기질의 차이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제, 박필주, 어유봉, 김창흠 등이 이 주장을 지지했다.

한원진의 생각은 달라서 도덕성은 인간에게만 있을 뿐이요, 감정이 아직 표현되지 않을 때라도 선악의 차이는 엄연하다고 봤다. 이에 윤봉구, 최징후, 채지흥 등이 공감했고, 스승 권상하도 찬동하는 것 같았다.

조금 더 따지고 보면 이간은 본성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주리론(主理論)의 입장이었고, 한원진은 기질의 차이를 강조하는 주기론(主氣論)을 계승했다. 호락논쟁은 무려 200년 이상 계속됐는데, 양측 모두 선형적인 형이상학에 기울어 있었다. 그들은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고 선배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듯했으나, 그래도 사상적인 이바지가 적지 않았다. 이간의 주장을 계승한 담헌 홍대용이 화이론(華夷論)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홍대용은 주리론을 바탕으로 문명과 오랑캐의 근본적 차이를 부정하고, 세상에는 중심과 주변을 가르는 근원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이간은 영조 3년(1727)에 51세를 일기로 작고했다. 그는 생전에 광덕산 강당골에 관선재(觀善齋)를 짓고 강학에 몰두했다. 이곳은 훗날 외암서사(巍巖書社)로 불리다가 외암서원으로 바뀌었다. 그 후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리자 공주 마곡사에서 불상을 가져다가 강당사(講堂寺)라는 사찰이 됐다. 그 앞마당을 뒹구는 낙엽을 밟으며 이 글을 쓴다.

이정록 시인의 서랍

식구

그릇 기(器)라는 한자를 들여다보면 개고기 삶아 그릇에 담아놓고 한껏 뜯어먹는 행복한 식구(食口)들이 있다 작은 입이 돌이고 크게 벌린 입이 돌이다 그중 큰 입 돌 사라지자 울 곡(哭)이다 식은 개고기만 영겨 붙어 있다 개처럼 엮드려 땅을 치는 통곡이 있다

아니다, 다시 한참을 들여다보면,

기(器)란 글자엔 개 한 마리 가운데 두고 방싯방싯 웃는 행복한 가족이 있다 웅기중기 그릇이 늘어나는 경사가 있다 곡(哭)이란 글자엔 알타에 나간 어른 대신 남은 아이들 지키느라 쫓겨 있는 개가 있다

집은 제가 지킬게요 저도 밥그릇 받는 식구잖아요 밤하늘 별자리까지 흔들어대는 목청이 있다

『정말』 창비

식구(食口)는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다. 식구 중에 누군가는 그 밥을 벌어들인다. 식구 중에 누군가는 나중에 밥을 벌어들여야 공부하고 몸과 가꾼다. 정신을 가다듬는다. 그런데 둘러앉아 끼니만 때우면, 다 식구가 되는가? 뒷사람은 아랫사람을 양육하고 아랫사람은 뒷사람을 봉양해야만 식구가 완성된다. 밥상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폭군이 방 한가

운데 차지하고 있다면, 나머지 힘이 약한 가족들은 그늘진 모서리에 모여 눈치만 보는 집구석이 된다. 집은 들어가기 싫은 집구석과 따뜻한 품이 넉넉한 집안이 있다.

기(器)라는 한자 외에 눈물 루(淚)에도 개가 한 마리 들어있다. 어그러질 려(戾)라는 한자가 붙은 걸 보면, 무언가 어긋남을 깨닫고 참회와 반성의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 그럼 ‘외척 문이나 구멍이나 지게’를 뜻하는 호(戶)와 ‘개’를 본떠 만든 견(犬)이 만나서, 어떻게 ‘어그러지다, 되돌리다’라는 뜻의 려(戾)가 되었을까? 먹이에 눈이 멀어 구멍에 머리가 박힌 개가 쾅쾅거리며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이 떠오른다. 개구멍은 언제나 개보다 작으니까 말이다.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햇살과 거름을 나누고 하늘 가까이 닿으려 어 깨동무를 한다면 숲도 가족이다. 무논 가득한 개구리와 울창이도 노래와 사랑을 둥근 배와 울음주머니에 한가득 나눈다면 수천수만 마리가 몽땅 한 식구다. 안쓰러운 마음으로 무논을 채우고, 쓰디쓴 나뭇잎으로 숲속 바람을 일게 한다면.



이정록 시인

원주민과 귀농인, 함께 가야 멀리 간다

생생현장리포트



김수로
무한정보 기자

‘소멸고위험’, ‘인구감소지역’ 예산군을 비롯해 많은 군단위 지자체에 붙는 수식어다.

20여 년 전 다녔던 초등학교 전교생은 당시 60명을 넘지 않았다. 어린 시절 동네 어른들은 자신이 기억하는 학교의 모습을 들려주곤 했다. 학생 수는 훨씬 많았고 운동회 같은 행사도 떠들썩하게 치렀다. 골목에 나가면 항상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지금 학생 수는 더 줄었고, 내가 자란 고향마을에서는 어린아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람들은 계속 떠나고 있으며 지역에 정착하려는 이는 적다. 내포신도시가 들어서 삼교목리 쪽 인구는 늘었지만 다른 마을과 근내 11개 읍면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농업군인 예산은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자 그 자리를 외국인노동자가 채워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며 농업 현장에선 ‘일손이 없다’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이를 해소하려면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 정착해 농산업 기반을 이룰 여건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단

순 보조금 정책이나 일회성 교육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귀농인들은 공통적으로 ‘기술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는다. 초보 농부에게는 작목 선택부터 막막하다. 노지재배가 맞을지 시설하우스가 맞을지, 자세를 낮추고 하는 작업 위주 품목이 나올지 그 반대가 나올지 경험해보기 전엔 알 수 없다. 게다가 품질과 생산량은 기상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처법을 익히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농사를 잘 지어도 판로가 없으면 발을 동동 굴러야 하고, 작황이 좋아 시장에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급락한다. 일이 고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이유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무리하게 시설투자라도 했을 경우 빚을 갚는 데 급급한 하루하루가 될지도 모른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멘토’와 ‘열린 자세’다.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은 지역 베테랑들이 노하우를 전수한다면 초보 귀농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한결 줄여줄 것이다.

귀농인 역시 선배 농업인들에게 다가 가야 한다. 현장을 찾아 묻고 도움을 청해 필요한 것을 얻고 나눠야 한다. 지역정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함께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하다.

마음의 창, 눈

내 몸이 들려주는 건강 이야기 ‘눈물의 질’ 떨어지면 안구건조증 상하좌우 운동·마사지로 예방해야

어떤 이들은 저를 겨우 컴퓨터 화상 카메라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는 속담이 있지요? 실제로도 ‘완전 실명’이면 장애 등급이 97%가 되니 눈의 가치는 구백질십냥쯤 되는 셈이지요.

감기로 코가 막히거나 청력에 문제가 생겨도 불편함이 심하지만, 두 눈에 안대를 하고 10분만 생활해 보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금세 실감이 나실 겁니다.

시인들은 겨우 동전만 한 저를 보면서 깊고 깊은 ‘호수같다’거나 제 안에 ‘하늘이 다 들어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하였습니다.

저를 ‘마음의 창’이라고 부르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속 마음을 감추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중요하면서도 연약한 저는 특 튀어나온 이마와 광대뼈 사이 깊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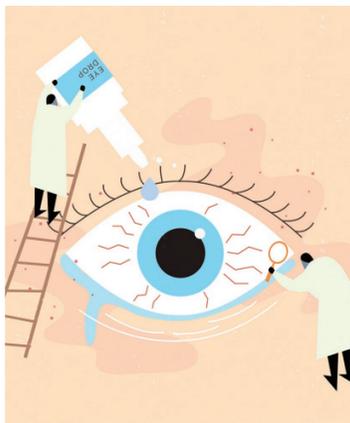
동굴에 안전하게 위치 해 있습니다. 작은 티끌 하나에도 매우 민감하게 작동하는 눈꺼풀이 불철주야 저를 지키고 있고요.

눈꺼풀은 위험할 때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1분에 20~30회 눈을 깜박이는데 눈꺼풀이 눈동자를 한번 덮을 때마다 눈물이 당신의 눈동자를 축축하게 적시고 먼지와 이물을 씻어 냅니다.

눈물은 그냥 맹물이 아니라 잘 증발하지 않는 성분과 각종 세균을 처리하는 효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눈이 뻑뻑한 느낌이 들고 자주 눈을 깜박이거나 심하면 눈물이 줄줄 흐르기도 하는 증상을 가진 분 중에 안구건조증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조증인데 왜 눈물이 줄줄 흐르냐고요? 안구건조증은 눈물의 양보다는 질의 문제입니다. 즉 안구를 코팅하는 표면장력이 약한 눈물이 원인이지요. 특히 TV나 핸드폰을 오래 보면 눈을 덜 깜박이게 돼 안구건조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치료는 인공눈물 성분의 안약을 수시로 점안하는 것이지만, 역시 예



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시 핸드폰을 끄시고 자주 먼 곳을 바라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양 손바닥을 20회 정도 빠르게 비빈 후 마찰로 인하여 따뜻해진 손바닥의 오목한 부분을 감은 눈 위에 지긋이 대보십시오.

이때 눈동자를 상하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는 안구 운동을 병행하면, 지친 눈의 근육을 풀어주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어릴 때는 먼 것이 잘 안 보이는 근시가 흔하고 중년 이후에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는 원시가 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젊은날에는 책을 가까이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더 멀리 보면서 책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하라는 심오한 뜻이 아닐런지요. /정유석 단국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도민들은 충청권 지방은행을 원한다!



충청권 거주자 58.4% “지방은행 필요해”

충청권 은행설립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큼니다. 충청권 거주자들의 10명 중 6명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대전·세종·충남·충북 충청권 4개 시도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8.4%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충청권 은행이 필요한 이유로는 ‘소상공인·서민 계층 지원(33.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개발 사업 추진(24.9%)’, ‘지역 중소기업 육성·지원(20.8%)’,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과 공헌 활동(15.1%)’ 순이었습니다.

또한 충남에 지방은행이 없다 보니 충남의 역외유출은 23조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또 금융양극화 심화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도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지역민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박차를 가해나갈 계획입니다. /도정신문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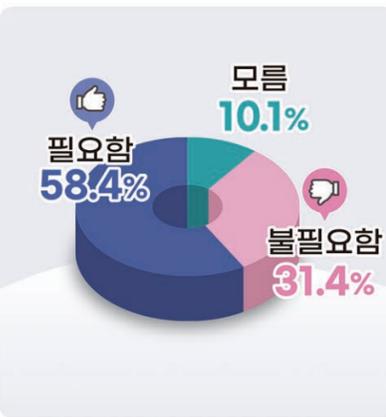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외환위기로 충청은행('98년), 충북은행('99년) 퇴출 이후**
→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동성 공급 악화
- 충남 역외유출 연간 23조 원(전국 1위) 발생**
→ 금융의 수도권 집중과 금융 양극화 심화
- 지역 경제 선순환 위해 지방은행 설립 필요**
→ 지방은행 설립 시 56~73%의 자금 유입 효과('20년, 한국은행)

지방은행 설립 여론조사 결과

※ 충남도 시행, 17~21일까지 대전·세종·충남·충북 충청권 4개 시도 거주자 만 19세 이상 1,000명 대상



▶ 지방은행은 왜 필요한가? (필요함 응답자 대상)

- 33.7% 소상공인·서민 계층 지원
- 24.9%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개발 사업 추진
- 20.8% 지역 중소기업 육성·지원
- 15.1%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과 공헌 활동

▶ 지방은행은 왜 불필요한가? (불필요함 응답자 대상)

- 83.2% 현재 일반 시중은행의 역할이 충분

전국 지방은행 자원 현황 (단위: 억원)

※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2021



지역별 예금은행 기업대출금 현황

지방은행 소재 지역과 비교
※ 자료: 한국은행, 2018



향후계획

- 21년 12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지방은행 공동추진 협약식 추진
- 21년 12월 민·관, 경제·사회 등 각계 각종 참여, 범도민 추진단 발족
- 21년~22년 대선 지역공약 및 지방선거 핵심 공약 포함 추진
- 22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전문 타당성 연구용역 수행
- 22년 범충청권(4개 시도) 추진단 발족 및 자본금 출자자 모집
- 23년 금융위원회 인가 관련 사전 협의 및 인가서 제출



전국에서 온 청년 300명, 금산 살기로 귀농을 꿈꾸다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함께하는 충남의 100가지 변화(4)

청년 네트워크 공간 운영

금산 용화1리 의제팀 유유자립

마을 유희공간 스테이로 개조해

귀촌 꿈 키우는 교류의 장 조성

전국서 청년 300여 명 누적방문

“청년 네트워크 중심 금산 꿈꾸요”

[금산]최근 충남의 한적한 농촌이 청년들의 온기로 가득 찼다. 쉬, 귀촌 준비 등 저마다의 이유로 젊은이들이 찾아와 서로, 또 원주민과 소통하며 작은 시골마을에 녹아들었다.

300명이 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만든 금산 용화1리 의제팀 유유

자립의 강은구 대표를 만났다.

대전에서 청년활동가로서 꿈을 키우던 그는 치솟는 집값, 이웃과의 관계가 결여된 삶에 회의를 느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늘어난 빈집, 부족한 생활·문화 인프라 등을 마주한 강 대표는 청년이 행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평범한 삶은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하고 집을 사는 것. 이 경로를 벗어난 청년들이 ‘실패자’로 낙인찍히는 게 안타까웠다”며 “청년들이 굳이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대안적 삶’을 살며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청년 마을’ 만들기엔 나선 유유자립 의제팀은 폐허가 돼 마을 한편에 방치돼있던 유희시설 ‘연리제’를 개조해 9~11월 3달간 스테이(체류 공간)를 운영했다. 삶의 여유나 귀촌을 희망하는 전국의 젊은이들과 ‘금산살기 프로



금산 용화1리 의제팀이 실행한 ‘금산 살기’ 프로젝트 참가자들. 전국서 모여든 청년들은 이곳에서 기술을 배우고, 휴식을 취하며 귀농을 위한 꿈을 구체화시켰다.

그램’, ‘농촌 생활 지식&기술 교육’ 등을 함께 했다.

낮에는 글을 쓰고, 여행하고, 이웃 원주민과 만나는 등 각자 원하는 활동을 했다. 날이 어둑해지면 연리제로 모여들어 저녁을 먹으며 교류의 장을

열었다. 막연히 귀농을 꿈꿨던 이들이 모이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발전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시골, 금산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3개월간 300여 명의 청년들이 누적 방문했다”며 “하

루살이가 한 달이 됐고, 귀농을 위해 부지를 보러 다니는 이들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입소문이 나면서 인구 증가를 위해 인간힘을 쏟는 전국 군 단위 지자체에서도 직접 용화1리를 방문해 시골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던 비법을 벤치마킹해가기도 한다.

그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청년인구를 원하는 지자체가 밭 벗고 나서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강 대표는 “‘금산살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귀촌하는데 필요한 조건’에 대해 설문조사했다. 첫 번째가 주거, 두 번째로 친구, 마지막이 금전적 부분이었다”며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꿈을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모아 함께 활동하고 싶다. 우리만의 문화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전국의 청년들이 만나는 교류의 장이 금산에 열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재현 scottju@korea.kr

“제빵 외길에서 찹쌀 파배기 탄생시켰죠”

당진 독일빵집 심중섭 대표

지난해 파배기 100만 개 팔아

“매일 새벽 4시 기도하며 만들어요”



당진 독일빵집 심중섭 대표

[당진]지난 한 해 당진 독일빵집을 찾은 손님만 17만 명, 팔린 파배기만 무려 100만 개에 이른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빵집에 밀려 점점 동네 작은 빵집들이 자취를 감췄을 때 독일빵집은 살아남아 충남 유일의 백년가게에 이르렀다.

그 뒤에는 심중섭 대표의 ‘똥심’이 있었다. 그 힘이 지금의 독일빵집 성공과 ‘백년가게’ 타이틀, 그리고 국가 공인 ‘명인’ 선정으로 이끌었다.

심 대표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백년가게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100년을 이어가야 하는 만큼 현재 두 아들(재광·재석)이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다”며 “내가 부족한 부분을 두 아들이 채워가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심중섭·위금자 부부가 독일 빵집을 이룬 지 32년이 됐다. 수익

이 크지 않아 심 대표는 20여 년 전 생계를 위해 다른 업종에 손을 대야만 했다. “돈을 더 벌어도 빵 만들 때와 달리 다른 일에는 의욕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 길로 제빵에 더 전념했어요. 덕분에 지금의 하루 찹쌀 파배기가 나올 수 있었어요.”

심 대표는 여전히 새벽 4시 30분부터 빵을 만들고, 사랑의 빵 만들기 재능기부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빵 만들기 전에 10분 정도 묵상을 해요. 빵에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어떤 기술보다도 그 마음이 빵을 맛있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빵에 정성과 사랑을 담는 방법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한수미/당진시대



“미안마 민주주의의 회복 응원합니다” **[부여]**충남 부여군은 지난달 26일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미안마 난민을 위한 구호품 전달식을 가졌다. 군은 겨울용 외투, 내복, 의류, 침구류 등 겨울을 날 수 있는 구호품 및 운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성금으로 전달해 피난민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부여군 제공

충남아산FC 김인균, ‘영플레이어상’ 수상

프로 데뷔 2년차인 올해

시즌 32경기 8골 2도움

[아산]충남아산FC에서 올 시즌 맹활약을 펼친 미드필더 김인균이 하나원큐 K리그2 대상 시상식에서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다.

김인균은 리그 10개 팀 감독과 주장, 미디어 투표 합산 점수 39.24점을 받아 박정인(부산), 오현규(김천), 이상민(서울이랜드) 등을 제치고 영광의 주

인공이 됐다.

‘신인상’에 해당하는 영플레이어상은 만 23세 이하 선수 중 프로데뷔 3년이 지나지 않은 선수에게 주어지며 한 시즌 중 50% 이상 출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프로데뷔 2년차인 김인균은 올 시즌 아산에서 32경기에 출전해 8골 2도움으로 만점 활약을 펼쳤다.

지난 3월 부산전에서 그토록 바라던 K리그 데뷔골을 터뜨렸고, 8월 서울이랜드전에서는 첫 멀티골로 라운드



K리그2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한 김인균(가운데)

MVP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인균은 “내년에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민/아산신문

논산, ‘귀농·귀촌’ 인기 도시 발돋움

하반기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영농기술교육 52명 수료

[논산]충남 논산시가 농민친화적 맞춤형 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 귀농·귀촌 인기 도시로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논산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2021년 하반기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영농기술교육 수료식’을 진행, 총 52명의

귀농귀촌인에게 수료증을 선사했다.

금년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됐으며, ▲농업농촌의 이해 ▲논산시 귀농귀촌 안내 ▲농촌 생활법률 ▲농산물 홍보 마케팅 ▲농업경영 및 회계실무 ▲전통문화 체험 등 실용적 영농기술과 농촌문화 체험 등 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교육으로 추진됐다.

특히 세대별 참여 비율이 20~30대



비대면으로 진행된 신규농업인 교육 장면

23%, 40~50대 64%, 60대 이상 14%로 나타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가 노소(老少)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산시 제공

행복하기 위해선 연습이 필요하다



사서들의 서재



(김지영/필름/2021)

행복에 대한 정의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것에도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면서 행복이란 것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고 느끼기도 한다. 어쩌면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아닐까? 김지영 작가의 ‘행복해지려는 관성’은 행복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다.

행복은 노력을 통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발견하고 단련을 통해 유지된다고 작가는 말한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 속에서도 긍정과 용기를 가지고 결국 ‘행복’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을 체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책은 총 3가지 장으로 구성된다. ‘Part 1 발견하기’에서는 별것 아닌 일상일지라도 그 안에서 ‘그래도’를 발견하는 긍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Part 2 정의하기’는 타인이나 세상의 기준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를 통해 ‘내 식대로의 행복’을 정의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Part 3 유지하기’에서는 끊임없는 단련을 통해 ‘바로 지금 여기서’ 단단한 행복을 유지함으로써 마침내 ‘행복해지려는 관성’을 체득하게 된다고 말한다.

힘든 하루를 보냈거나, 나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고 느낀다면, 행복을 ‘크고 우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불행한 사람이다. 적극적으로 단단하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다. 힘든 하루 속에서도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조금의 긍정과 용기를 가진다면 행복을 내 마음에 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행복을 ‘연습’해보는 것은 어떨까.

/신설기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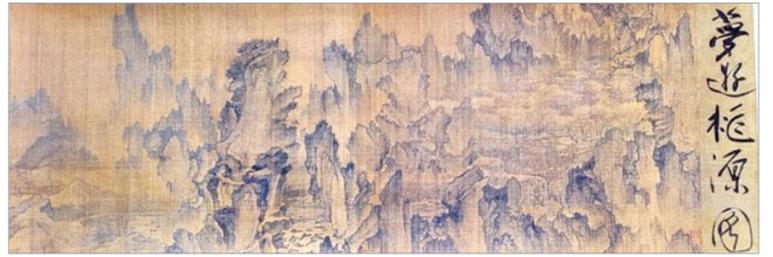
임란때 일본에 약탈당한 몽유도원도, 안녕하십니까?

서산문화재단-안전기념사업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제안

[서산]일본에 빼앗긴 우리유산 ‘몽유도원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서산문화재단과 안전기념사업회 공동으로 개최한 ‘안전의 탄생, 세계를 가다’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는 500년 전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약탈

당한 몽유도원도(일본의 국도)를 되찾는 시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자는 주장이 펼쳐진 것. 경임 중원대 교수는“몽유도원도는 한국 역사상 문화의 최고 황금기 세종시대를 상징하는 유일한 회화작품으로 임진왜란 때 약탈당해 5백년 간 일본에 비장되어 현재 일본의 국보(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며 “우리는 몽유도원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없으며 반환을 위한 첫걸음으로

몽유도원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조규선 서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안전기념사업의 과거와 미래’라는 발제에서 “우리 고장의 미래 경쟁력은 안전이다. 이상향의 안전예술혼 창의적인 인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시대, 인간의 정신적 행복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안전의 몽유도원도. 임진왜란때 약탈 당해 일본의 국보로 지정돼 있다.

안전의 출생지인 서산시에서 조례를 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제정하여 환수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 주장했다. 박채연/서해안신문

꽃지해수욕장, 낙조 명소에서 인증샷 명소 되다

해안침식 막을 공원 조성
낙조 감상하며 인증샷

[태안]태안 꽃지해수욕장에 해안침식을 막기 위한 ‘꽃지해안공원’ 준공됐다. 꽃지해수욕장은 ‘할미할아비 바위’ 사이로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서해안 대표 해수욕장이다. 하지만 불법 노점상과 해안침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며 아름다운 경관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군은 완만한 경사의 자연형 호안으로 바다와 육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꽃지해안공원을 설계했다. 모래 해변과 잘 어울리도록 곡선으

로 디자인됐으며 멀리서 바라봤을 때 거대한 뱃머리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졌다. 면적은 4730㎡에 달한다. 공원 내에는 인공호가 들어섰으며 할미할아비 바위를 조망점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인피니티 스튜디오’가 들어섰다. 또 조경수 아래 그늘정원과 어린이 분수, 체험형 놀이 공간인 모래정원 등도 조성됐다. /도정신문팀



지중해에 온 느낌을 주는 꽃지해안공원 전경

예산 예가정성 세계명품브랜드 대상

백종원 홍보대사 활용 광고

[예산]예산군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예가정성’이 ‘2021 세계명품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기자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시상식에서 ‘예가정성’은 브랜드 인지도 및 선호도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산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품격 있는 농산물’이라는 의미의 ‘예가정성’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지난 2016년 4월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현재까지 사과, 방울토마토, 쪽파, 파리고추 등 농산물 15개 품목과 농산물가공품 51품목을 사용 허가



예산군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예가정성’

해 예산지역에서 생산 및 제조되는 농특산물 브랜드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또한 예산군 출신 백종원 홍보대사를 활용한 CF광고와 교통 광고, 지하철 스크린 광고, TV 광고 등을 추진했다. /예산군 제공

천안시 숨은 독립운동가 455명 발굴

195명 서훈 추천 예정

[천안]천안시는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 연구용역을 통해 독립운동가 455명을 새롭게 찾아냈다고 밝혔다. 천안은 일제강점기인 1919년 목천 공립보통학교 학생 만세운동을 시작

로 입장 양대리장터 만세운동과 병천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발굴된 천안의 독립유공자는 101명에 불과해 천안시는 지난 6개월 동안 천안 출신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발굴된 독립운동가 중 김무진 선생

과 김영규 선생은 정미의병 참여로 징역 10년 형을 받았고, 김용이 선생은 아우내장터 3·1운동에 참여해 징역 4년, 유경일 선생은 교사로 재직하면서 항의일식을 고취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천안시는 발굴된 455명 중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195명의 제적부를 확인해 국가보훈처에 서훈 신청을 할 예정이다. /천안시 제공

태안 ‘샘골 도시공원’ 준공

생태 친수공간으로 재 정비

[태안]태안군 태안읍 ‘샘골’ 일원이 생태와 문화가 숨 쉬는 친수 도시공원으로 거듭났다. 태안군은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준공식’을 가졌다. 샘골은 태안 군민들이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 먹 감고 뛰어놀던 추억의 장소다. 군은 오랫동안

방치됐던 이곳 일원을 친수공간으로 재 정비해 군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2019년부터 45억원을 들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교량과 정자를 설치했다. 또 485m 산책로, 25m 황톳길과 휴게 쉼터 3곳, 저류지 2곳을 조성하고 회양목 3500그루와 맥문동 1만 그루도 심었다. /태안군 제공

서산 간월도 관광개발 본격화

21년 만에 호텔 콘도 착공
체류형 관광 기대감

[서산]서산시 부석면 간월도 관광지 개발이 본격화 된다. 관광지 지정된 지 21년 만이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달 우선협상 대상자인 한국관광개발사업단(사업단)과 간월도관광지 분양토지 5만5892㎡을 308억원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12월 중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다. 사업단은 이곳에 5000억 원을 투입

해 지상 19층 368실 규모의 콘도(연면적 9만7548㎡)와 458실 규모의 15층 호텔(연면적 7만4204㎡) 등 모두 826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가족단위로 4계절 즐길 수 있는 수영장과 휘트니스센터, 카페 등 편의시설을 갖추게 돼 체류형 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또 지상 3층 규모의 상가(연면적 1만8154㎡)도 들어서 콘도와 상가, 호텔을 잇는 브릿지 통로는 이용객들의 편의와 관광 등 특별한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간월암은 동양 최대규모의 서산 천



간월도관광지 개발사업 조감도

수만 간월호가 위치한 세계적 철새도래지로, 간월도 어리굴젓 원산지다. 주변에는 해미국제성지 등 인프라와 주변 관광지가 풍부하고 보령해저터널과 원산안면대교 개통으로 체류형 관광에 대한 기대가 크다. /도정신문팀



태안군이 조성한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부여군, 홍주의병 지티봉기 기념비 제막

을사늑약 이후 대규모 항전
3·1운동에 지대한 영향

[부여]부여군은 내산면 지티리에서 ‘홍주의병 지티봉기 기념비’ 제막식 개최했다.

홍주의병은 1905년 11월 17일 체결된 을사늑약에 맞서 일어난 을사의병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성공적으로 항전을 벌인 의병이다. 1906년 3월 예산군 광시장터에서 시작해 성과 없이 조기 해산됐지만, 그 해 5월 내산면 지티리에서 다시 봉기

했는데 이조참판을 지낸 민중식을 대상으로 추대하고 홍산과 서천, 비인, 남포, 보령, 광천, 결성을 지나 홍주성을 점령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홍주의병의 정신은 이후 국내외 독립전쟁으로 계승돼 3·1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번 행사는 구국일념으로 산화한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자 추진됐다. /부여군 제공

중증장애인 초청 콘서트 열렸다

중증장애 250여 명 초청
‘우리소리와 놀자’ 감동

[공주]공주시민과 함께 하는 장애인식개선 콘서트 ‘우리소리와 놀자’와 ‘만남’이 각각 펼쳐져 관객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지난달 24일 열린 ‘우리소리와 놀자’ 콘서트는 우리나라 최고의 장애, 비장애예술가들이 한데 모였고 성악

가 최승원, 발레리나 고아라, 무용가 김용우, 이소민, 경기민요 박정미, 민요자매 이지원, 이송연 양 등이 출연해 큰 감동을 선사한 것. 23일 열린 ‘만남’에서는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던 장애인거주시설의 입소자들을 대거 초청해 큰 기쁨을 선사했다. 행사에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명주원, 소망공동체, 주간보호센터 두루두루 등 250여명의 장애인들을 초청받았다. /공주시 제공



태안~보령시, 국도77호선 개통 교차관광 본격 추진

해저터널 개통 투어버스 운영
양 지역 관광 상품 개발 나서
영목항엔 51m 전망대 추진

[태안·보령]태안군과 보령시가 해저터널 준공으로 국도77호선 개통을 기념하는 '태안-보령 시티투어'를 시범 운영한다.
교차관광은 태안군과 보령시 소속 투어버스가 투어객을 태우고 태안과 보령에서 각각 출발해 원산안면대교를 건너는 시티투어다.
태안군과 보령시 투어객들이 완전

개통된 국도77호선을 타고 서로의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며 특별한 추억을 남기는 프로그램이다.
태안군과 보령시는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상품 개발에 나서는 등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지자체는 국도77호선 완전 개통을 계기로 서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과 영목항, 원산도, 천수만권역 관광코스 및 연계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국도77호선의 마지막 공정인 보령 해저터널 완전 개통 시 보령 대천항에서 태안 영목항까지의 차량 소요 시간이 기존 9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

되는 등 수도권과 전라권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태안군은 고남과 안면지역을 새로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각종 관광개발 전략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영목마을 특화개발 사업 준공을 통해 남부권 신 관광인 영목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2022년 6월까지 51m 높이의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양 지역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도정신문팀



77호 국도변의 영목항과 원산안면대교 항공사진

예산군, 도시재생 거점 행복주택 건립

옛 예산군청 부지에 건립
전용면적 최대 44㎡ 150세대
[예산]옛 예산군청 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입주절차에 들어갔다.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146억 원을 들여 전용면적 21~44㎡, 세대수는 총 150세대 규모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행복주택 입주가 완료되면 구도심 인구증가와 함께 젊은 층의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행복주택은 2019년 선정된 예산3리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예산군 제공



옛 예산군청 부지에 들어선 행복주택

대흥현보존회 '의좋은형제축제' 성료

전통 짚공예품 120여점 전시
[예산]대흥현보존회(회장 이복현)가 의좋은형제공원에서 '의좋은형제축제'를 열었다.
대표 프로그램인 '벗짚예술제'는 6개월여동안 공들여 만든 대형조형물 형제붕어와 황새를 비롯해 미투리, 삼태기, 여치집, 억새비 등 다양한 전통 짚공예품 120여점을 전시했다.

'추억의게임' 부스에는 이성만·이순형제가 가을걷이를 마친 뒤 서로의 참고에 벗단을 쌓아뒀던 모습을 재현한 '벗단나르기'부터 구슬치기와 딱지치기, 자치기, 달고나 만들기 등을 운영했다.
군 관계자는 "대흥 짚공예가들이 정성들여 만든 작품은 해마다 늘리고 향후 전통먹거리시장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로/무한정보신문

온양온천시장에 주차장 조성

복합센터 2022년 11월 중공
[아산]아산 온양온천시장에 복합지원센터가 착공된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지상 1층 상가, 2층 고객지원센터와 주차장, 3~4층

에 210개 면의 주차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2019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올해 8월 미협회의 토지 1필지 수용재결 완료, 10월 기존 지장물 철거 완료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11월 준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조감도

공 목표로 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아산시 제공



눈 내린 개심사 **[서산]**서산에는 팔봉산과 황금산, 가야산, 개심사, 간월암, 해미읍성 등은 내린 풍경이 아름다운 관광지가 수도룩하다. 그 중 운산면 개심사 절경은 고즈넉한 아름다움의 백미로 꼽힌다. 지난달 내린 1.2cm의 눈이 가느다란 나뭇가지의 윤곽을 만들었다.
/도민리포터

서천군 5년간 3000명 귀촌 전입했다

올해 454세대 644명 귀농
전담 기구 등 맞춤형 지원
[서천]서천군이 다양하게 펼친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인구 유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서천군에 따르면 올해 454세대 644

명의 귀농·귀촌인을 유치했다.
최근 5년간 정착한 귀농·귀촌인은 2028가구 2990명(도시민 전입자 누적)에 달한다.
군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전담 기구를 설치해 단계별 교육과 상담지원,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펼쳐왔다.
/서천군 제공

특히 초보농업인 창업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 기초농기계교육, 현장실습교육, 귀농창업 활성화의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온 성과다.
군 관계자는 "신규 농업인들이 농업·농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정 운영과 견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서천군 제공

공주시, '고마곰과 공주' 신생아 초점책 제작 배부

초점책 2000세트 선물
[공주]공주시 캐릭터를 활용한 아기 초점책 2000세트를 제작해 출산 가정에 선물로 지급하고 있다.
공주시 마스코트인 '고마곰과 공주'를 활용한 아기 초점책은 흑백과 컬러 총 2권으로 구성됐다.
초점책은 총 2천 세트 제작됐으며 출생 신고 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선물로 제공하게 된다.
공주시는 지역살화인 고마곰과 지역문화유산인 공주신씨를 재해석해 탄생된 '고마곰과 공주'를 주요 행사와 축제 등에 활용하고 있다.
/공주시 제공



공주시 캐릭터 활용한 아기 초점책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서 오징어게임

관광객 참여해 '무궁화' 줄다리기 등 5개 게임
[보령]보령시가 보령해저터널 개통을 기념해 대천해수욕장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대천바다 미니 오징어게임'을 진행했다.
행사는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앞

백사장에서 진행되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달고나 게임', '유리다리', '테스매치 딱지치기' 등 총 5개의 게임으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달고나 만들기, 구슬치기 및 오징어게임 요원 복장 체험 등 다양한 부스 운영을 통해 방문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령시 제공

수도권에서 서산 6쪽 마늘 특판전

농협유통센터 통해 판매
양재점 성남점 수원점
[서산]서산시가 이달 20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점, 경기도 분당구 성남점·관선구 수원점 농협유통센터에서 서산6쪽마늘 특판 기획전을 연다.
서산6쪽마늘은 대표적 한지형 발마늘로 저장성이 우수하고, 맛과 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항균작용을 하는 알리신이 풍부하다.
Kg당 1만원에 판매되며 3만원 이상 구매 시 시식용 뜬부기 쌀 800g을 증정할 계획이다.
임종근 서산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서산6쪽마늘을 좋은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특판전에서 서산6쪽마늘 43톤을 판매할 계획이다.
/서산시 제공



제333회 정례회 도의원 주요 의정활동

‘국회-지방의회 협력회의’ 구성 촉구



김명선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는 제7차 임시회에서 ‘국회지방의회 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가칭)’을 채택했다.

김명선 의장(당진2)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국회와 지방의회 간 상시 소통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협력회의의 구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장은 “입법기관 간 협력회의를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야 할 때”라며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미세먼지 신호등’ 개선 대책 촉구



이공휘 의원

이공휘 의원(천안4)은 ‘미세먼지 신호등’의 무용론을 제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신호등과 알람벨이 모두 설치돼 있는 도내 학교는 총 342개로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신호등이 1시간 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농도 기준 차이로 인해 나쁨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수준으로 알리는 것이 학생건강을 지키는 일인가?”라며 도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 안전 기해야



방한일 의원

방한일 의원(예산1)은 도내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주문했다.

방 의원은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차량 훼손과 곡예 운전 유발로 2차 사고 우려까지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긴급차량에 우선 신호를 보내는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이뤄지길 요청했다.

학생인권센터 독립성 확보해야



김영수 의원

김영수 의원(서산2)은 학생인권센터가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각계 전문가 토론을 거쳐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학생인권센터가 민주 시민교육과에 소속되어 있어 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별도의 운영 기구로 설치하여 센터의 역할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웅천산단 기업유치 전략 촉구



이영우 의원

이영우 의원(보령2)은 보령 웅천산단지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웅천산단지는 2021년 최초로 기업 10곳을 유치했으나 근로자 수 50명 미만 소기업이었고, 분양률은 20%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먼 서남부 지역은 교통, 인적자원, 교육환경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과격적인 입지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디자인진흥원 설립 제안



지정근 의원

지정근 의원(천안9)은 충남디자인진흥원 설립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충남도가 디자인 산업에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국내외 소비자와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라며 디자인 행정·총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DK WORKS) 등 중요 국책사업에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촉구



안장현 위원장

안장현 의원(아산4)은 “일제에 맞선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뜻이 충남에 흐른다”며 “역사 학계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무장투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역사적으로 복권된 지 17년이 넘었지만 아직 서훈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탄소중립시대 환경교육 실천해야



김은나 의원

김은나 의원(천안8)은 탄소중립 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환경교육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환경교육 교과개설 학교는 36개교, 교사는 77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행 학교도, 교사도 부족해 종합계획 추진이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력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 남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오인환 의원

오인환 의원(논산1)이 남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천안권(천안·아산), 공주권(공주·계룡), 서산권(서산·태안·당진), 홍성권(홍성·청양·예산·보령), 논산권(논산·부여·서천·금산) 등 5개 진료권 중 유일하게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논산권뿐”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이 분석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충남 인구 10만 명당 ‘입원환자 사망비율’은 1.13(서울 0.93),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율’ 1.17(부산 0.87), ‘치료가능 사망률’은 50.2%로 높았다.

장애인콜택시 요금 무료화해야



정병기 의원

정병기 의원(천안3)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법정대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정해져 있으며, 충남은 231대로 법정대수 대비 80.5%의 도입률에 그친다.

정 의원은 “충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낸 금액은 연간 9억 6979만 원으로 운영비 90억 882만 원 대비 10.7% 수준”이라며 “이용요금을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공공기관 인권경영 개선 주문



이선영 의원

이선영 의원은 도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태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와 인권센터는 그 역할이 정해져 있어야 함에도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가 두 기관의 업무 영역을 넘나들고 있어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역할을 정확히 분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보령해저터널 개통 이면에 터널 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2년여를 교통속에서 살고 있는 어민들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보급 확대해야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태안2)은 농산물 가격하락 대응을 위한 저온저장고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수확철 농산물의 ‘홍수 출하’와 가격폭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온저장고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는 최근 5년간 저온저장고 880동을 보급했다.

정 의원은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소형저온저장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드론 전담팀 신설 촉구



양금봉 의원

양금봉 의원(서천2)은 “드론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담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각 부서 간, 시·군 간 융·복합 현장 업무추진과 드론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도와 각 시·군 보유 드론은 169대로, 드론 자격증 취득 공무원 174명이 현장 업무에 활용한다. 이어 “시·군별 전문방제단을 구성해 적정 시기 방제 등 드론서비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 구성해야



조승만 의원

조승만 의원(홍성1)은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민관협업체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대상 공기업과 공공기관과 접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의료사각지대를 극복하지 못하면 혁신도시 활성화는 요원하다”며 “공공의대와 대학병원급 병원 유치를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농복합도시 공동화 해법 제시



이계양 의원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은 ‘서해선 복선전철을 활용한 역세권 도시재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자치분권연구소는 ▲복선전철 사업을 반영한 역세권 개발 ▲관광 개발 ▲대학 공동캠퍼스 유치 ▲재생산업 이익공유제 ▲송전탑 지중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구모임 대표 이계양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의 공동화 해소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갑질 막는다



한영신 의원

도의회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입주자 갑질 방지에 나선다.

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천안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입주자 등의 갑질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며 관리종사자 부당 갑질 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갑질 발생 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김형도 의원

도의회는 김형도(논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유교 문화 진흥과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진흥원은 올해 말 논산시 노성면에 준공해 내년 상반기 개관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단법인의 근거 ▲추진사업 ▲행·재정적 지원 ▲지도·감독 등을 담았다.

계룡군문화엑스포 적극 홍보 당부



김대영 위원장

도의회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는 4차 회의를 열고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1년 재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와 프로그램 보강 및 홍보방안을 보고했다.

김대영 위원장(계룡)은 “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비가 전체 예산대비 10%로 홍보비가 너무 적다”며 “군 문화 관련 유튜브채널의 채널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해야



김기서 의원

‘충남도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관련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은 “2030년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 중 에너지 분야와 산업분야가 굉장히 미비하다”며 “대기업은 충분히 스스로 진행할 능력이 되지만 중소기업은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인환 의원(논산1)은 “기후환경국을 중심으로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물류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한다



최훈 의원

도의회는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훈 의원(공주2)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물류시설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했다. 이 개정안은 물류단지 심의 관련 공동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제333회 정례회 상임위 발언

공주 송선·동현, 명품지구로 만든다

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동의안’ 심사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은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재무적 타당성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현 위원장(아산4)은 “학교 신설문제를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우리 아이들의 통학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며 “분양 성과에만 집착하기보다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어 도민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명품 주거지구로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공희 의원(천안4)은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119안전센터를 비롯한 치안시설을 최적의 자리에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주시 또한 재도약의 소중한 기회를 살리려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면밀한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조길연 의원



오인철 의원

우수선수 유출방지책 마련 촉구

행정문화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충남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은 “우리 도는 고등부까지는 우수선수가 많으나 졸업 후 타 시도 유출돼 전국대회에서 상위권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우수한 선수들이 잔류할 수 있도록 유출 방지 대안과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학교 운동부 훈련 장비 지원내역을 살펴보니 15개 시군 중 태안군, 청양군, 서천군이 3년 동안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이



김옥수 의원



김기영 의원



김연 의원

없다”고 지적하며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영 의원(예산2)은 “우리 도가 지난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포함된 만큼 내포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제안했다.

탄소중립 시 도민 피해 최소화해야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은 “탄소중립 추진사업 간에 피해를 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도민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최근 환경관심도가 높아 보니 민간에서나 도에서 많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을 더욱더 꼼꼼하게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황영란 의원



김동일 의원



김한태 의원

김동일의 의원(공주1)은 “미세먼지 알리관 실효성이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운영 의원



홍기후 의원

농촌인력 부족 해소방안 촉구

농수산해양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인력육성을 위한 전담팀 구성·운영을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은 “농촌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과 부족한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장승재 의원(서산1)은 다목적 농촌융수개발사업과 관련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주민과 도, 농어촌공사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장



김득응 의원



윤철상 의원



장승재 의원

윤철상 의원(천안5)은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김득응 의원(천안1)은 “충남 쌀 홍보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 예산대비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특정 언론사에 편중되지 않게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민안전예산사업 신속한 추진요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조례를 심의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코로나19 시국에 재난안전실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큰 문제”라면서 관련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김복만 의원(금산2)은 “기 추진중인 시·군 하천정비 보조사업, 국가하천 보조사업 등은 추진이 미진하고 감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은 “도민안전보험이 당진시를 제외한 도민 100% 가입되었는데, 수해율이

35%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최훈 의원(공주2)은 “공주 왕촌천 가동보 개량 사업비 4억원 전액 감액은 국·도·시·군간 사전 협의와 협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정근 부위원장(천안9)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의 예산편성 적정성을 질의하면서 수급자 중심의 고품질 영유아 카시트 보급을 주문했다.

안전소위는 이날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익현 의원

사립고 상피제 적용 대책 마련 촉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 대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은 “시·군 협치 유출 사건 등 재발방지를 위해 사립고에도 상피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학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은 “독서교육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유병국 의원(천안10)은 “구상권 관련 규정을



조철기 위원장



김석곤 의원



유병국 의원



홍재표 의원

정비에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잘못된 업무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시했다.

홍재표 의원(태안1)은 “교육청의 학교시설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담당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하는 등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토론회

‘농업 유통혁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생산-소비자 상생 유통’ 의정토론회



김명숙 의원

도의회는 지난달 김명숙 의원(청양) 요청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한 농산물 유통’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김명숙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기범 만민산농협 농산물산지 유통 센터장이 주제를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기범 센터장은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산지간 연대, 협업을 통해 개별산지의 대응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농산물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 아닌 포괄적·거시적 관점에서 농산물 유통의 당면과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숙 의원은 “농업의 영역에서 농산물의 유통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대동맥이자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위한 근원적 동력”이라며 “농업 유통단계 혁신을 통해 농민에게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내포신도시·홍성 원도심 함께 발전해야 ‘원도심-신도시 상생발전’ 의정토론회



이중화 의원

도의회는 지난달 ‘원도심과 신도시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중화 의원(홍성2)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오용준 박사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상생발전 전략으로 ▲정주환경 격차 해소 ▲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연계교통망 확충 ▲문화·관광협력기반 구축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동발전 목표 공유 및 상생발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홍성 원도심과 내포신도시의 상생발전 유도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구 10만 명의 자족적 신도시를 목표로 내포신도시를 건설했으나 목표 대비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수를 기록했고,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경제·사회·문화·교육 자원의 가치를 전면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홍성군 원도심이 신도시와 공동 발전해야 충남 서해안의 중심지, 행정 요충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업혁신위원회’로 인삼 산업 키워야 ‘금산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의정토론회



김복만 의원

도의회는 지난달 26일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복만 의원(금산2)의 요청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김영수 원장이 ‘금산 약초시장 등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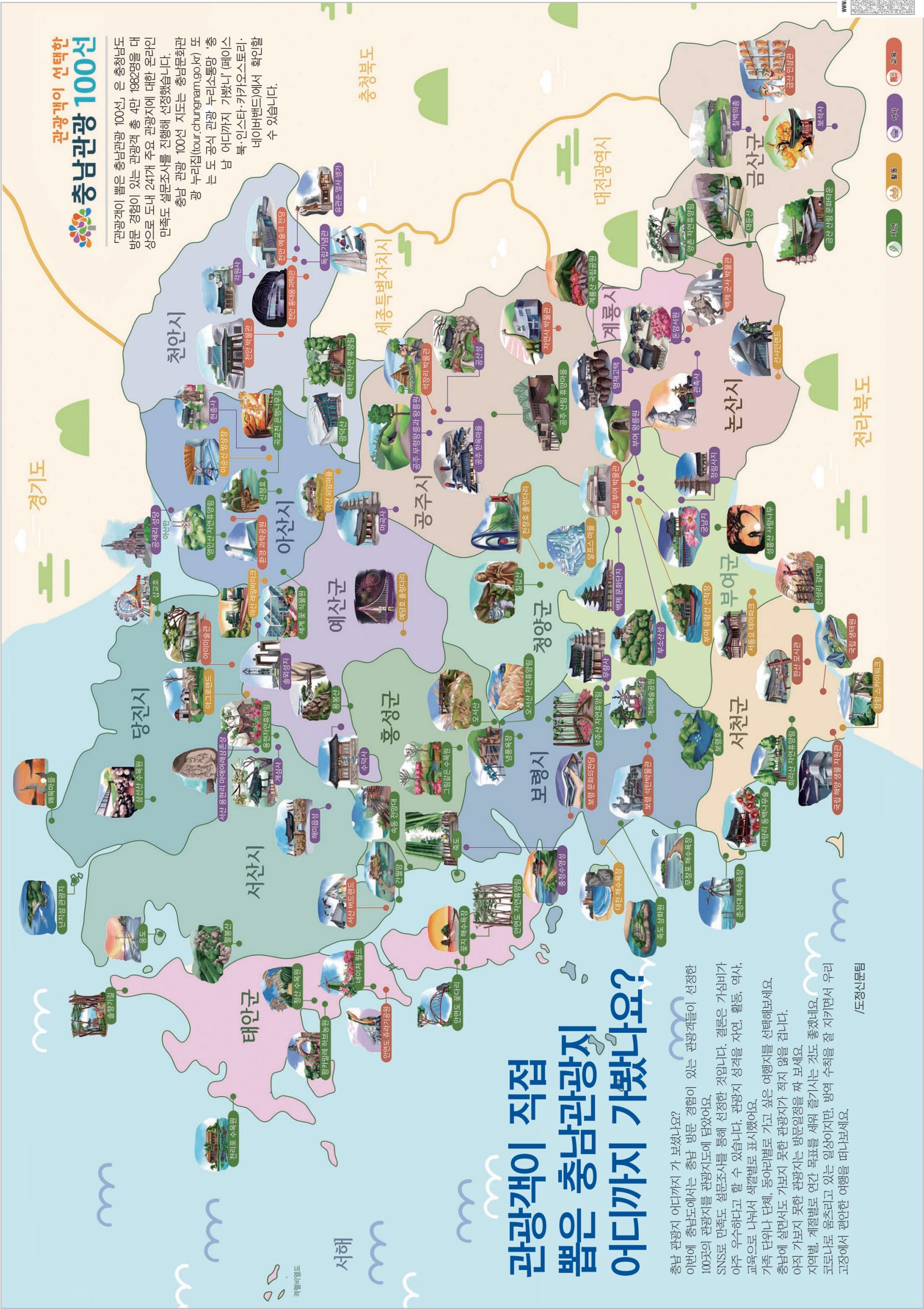
김 원장은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안’을 제시하면서 삼업(삼엽) 혁신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삼업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영수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은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안’을 제시하면서 삼업(삼엽) 혁신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삼업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복만 의원은 “최적의 정책 대안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객이 선택한 충남관광 100선

관광객이 뽑은 충남관광 100선, 은 충청남도 방문 경험이 있는 관광객 총 4만 1982명을 대상으로 도내 24개 주요 관광지에 대한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해 선정했습니다. 충남 100선 지도는 충남문화관광 누리집(tour.chungnam.go.kr) 또는 도 공식 관광 누리소통망 '충남 어디까지 가봤니'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네이버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직접 뽑은 충남관광지 어디까지 가봤나요?

충남 관광지 어디까지 가 보셨나요?
이번에 충남도에서는 충남 방문 경험이 있는 관광객들이 선정한 100곳의 관광지를 관광지도에 담았어요.
SNS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것입니다. 결론은 가심비가 아주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지 성격을 자연, 활동, 역사, 교육으로 나뉘어서 색깔별로 표시했어요.
가족 단위나 단체, 동리별로 가고 싶은 여정지를 선택해보세요. 충남에 살면서도 가보지 못한 관광지가 적지 않을 겁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관광지는 방문일정을 짜 보세요.
지역별, 계절별로 연간 목표를 세워 즐기시는 것도 좋겠네요. 코로나로 움츠리고 있는 일상이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 고장에서 편안한 여행을 떠나보세요.

/도정신문팀